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기 피아노 초급 교재 비교연구
및 사용 실태 조사

200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선 혜

논문 개요

아동기에 입문하는 대부분의 피아노 교육은 교재를 중심으로 교사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재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올바른 피아노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초교재의 분석을 통해 각 교재의 학습 내용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돕고 각 교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지도 방법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초급 교재 사용 실태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교재 사용현황과 교사들의 인지도와 의식변화를 알아보고 교재 선택과 피아노 학습에 있어 고려하고 개선할 점들을 논하고자 한다.

초급단계의 교재 중 교사들의 인지도가 높고 널리 사용되는 바이엘과 알프레드 예비과정 A급 레슨교재, 베스틴 피아노 교재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교재를 분석 결과 바이엘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교재로 구성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긴 하나 낮은음자리와 새로운 조성이 늦게 도입되고, 비슷한 유형의 연습곡이 반복되어 아동에게 지루하고 어려운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알프레드 교재는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고 다른 교재들에 비하여 내용과 설명이 자세하지만 학습 내용이 너무 세분화되어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으로 진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베스틴 교재는 다양한 색감의 삽화를 사용하고 그림을 통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줌으로 아동의 흥미

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적인 색채가 강한 교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곡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설문의 대상으로는 서울시내 음악학원과 교습소의 피아노 교사와, 기독교음악대학과 성신여대학교육대학원 전공생들 중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 56명을 표본으로 설문하였다. 결과를 보면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한 교사가 71.5%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피아노에 입문하는 시기는 주로 6~7세로 53.6%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로는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을 사용하는 교사가 응답자의 41.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교재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사 스스로가 타 교재와 비교해 보고 좋은 교재를 직접 골라 아동에게 적용하였다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음악적 능력의 향상은 리듬·가락·화성과 독보력에 각각 34%와 23%의 응답을 보였다. 사용하는 교재의 보완점으로는 흥미를 유발하는 악곡의 부족을 41.8%로 꼽았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41.8%의 교사가 보조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획일화된 교재를 가지고 교사중심으로 행해지던 피아노 교육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를 위해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도하려는 교사들의 다각적인 의식 변화가 보여 진다.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발전하는 교재의 종류가 바이엘에만 국한 되는 점이 아쉽고, 알프레드나 베스틴 등의 외국 교재역시 독점 출판의 한계를 넘고 새롭게 해석되는 교재연구 시도가 필요하다. 다음 연구에서는 현재 재해석된 수십 여 종의 바이엘교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의 피아노 학습과정과 교재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1.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5
2. 음악교육과 피아노 학습	6
(1)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의 특징	6
(2) 피아노 교육의 의미와 가치	7
(3) 피아노 교육의 흐름	9
3. 선행연구 고찰	11
III. 피아노 초급과정 교재의 특징 비교 분석 및 평가	19
1. 바이엘	19
(1) 바이엘 교재의 특징	19

(2) 바이엘 교재 분석	22
2. 알프레드	27
(1) 알프레드 교재의 특징	27
(2) 알프레드 교재분석	29
3. 베스틴	35
(1) 베스틴 교재의 특징	35
(2) 베스틴 교재 분석	36
4. 각 교재의 분석 비교 및 평가	43
(1) 각 교재의 비교 및 평가	43
(2) 종합 평가	54
IV. 초급과정 교재의 사용 실태 조사 분석	57
V. 결 론 및 제언	73

참 고 문 헌

ABSTRACT

악 보 목 차

<악보 1> 오른손 연습 기본자리	23
<악보 2> 높은음자리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	25
<악보 3> 왼손 반주	26
<악보 4> 예비악보	31
<악보 5> 음표와 박자표	31
<악보 6> 보표	32
<악보 7> 큰보표	33
<악보 8> 음정독보	34
<악보 9> 반복하여 건반 누르기	34
<악보 10> 예비악보	37
<악보 11> 8분음표 세기	38
<악보 12>오선보표	39
<악보 13> 음정연습	40
<악보 14> 스타카토 연습	41

그림 목 차

<그림 1> 바른자세와 손모양	29
<그림 2> 검은 건반을 통한 접근 방법	30
<그림 3> 음표와 박자표 인식	31
<그림 4> 영어단어와 그림으로 설명하는 음이름과 계이름	32
<그림 5> 건반 접근 방법	37
<그림 6> 음이름 연습	39
<그림 7> 임시표를 이용한 조성변화	41

표 목 차

<표 1> 국내 시판중인 바이엘	21
<표 2> 각 교재의 기본자세	44
<표 3> 각 교재의 건반 접근방법	45
<표 4> 각 교재의 예비악보, 쉼표, 박자표	47
<표 5> 각 교재의 계이름 음이름 인식	48
<표 6> 각 교재의 오선 보표 접근	50
<표 7> 각 교재의 음정학습	51
<표 8> 각 교재의 조성학습	52
<표 9> 각 교재의 테크닉	53
<표 10> 음악 용어	54
<표 11> 피아노 교사의 전공 분포	59
<표 12> 피아노 교수형태	60
<표 13> 교사의 경력	60
<표 14> 아동의 피아노 교육 시작 시기	60
<표 15> 교본 선택 전 고려 사항	61
<표 16> 교재에 대한 인지도	61
<표 17>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	62

<표 18>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선택한 이유	63
<표 19> 사용 교재에서 목적으로 하는 음악적 능력	63
<표 20> 교사가 느끼는 교재의 보완점	64
<표 21> 보조교재 사용여부	64
<표 22> 보조 교재 사용후 아동의 반응	65
<표 23> 교사의 전공에 따른 사용교재의 분포	66
<표 24> 학원과 개인레슨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	66
<표 25> 교사의 경력기간과 선택교재와의 관계	67
<표 26> 교재 선택시 아동에 대한 고려점과 선택 결과	67
<표 27> 교재 선택 결과와 사용계기	68
<표 28> 교재 선택시 고려하는 아동의 음악적 능력	69
<표 29> 선택한 교재에 따른 교재별 어린이의 반응	70
<표 30> 선택한 교재 사용시 교사가 느끼는 교재의 보완점	7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인간 경험의 모든 범위를 표현 할 수 있는 예술이다. 자연이 존재하면서 음악이 존재 하였고 음악을 통하여 인간은 개인의 내재적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음악은 존재할 것이다.¹⁾ 이렇듯 인간존재의 기본조건인 음악을 계획적인 목표를 가지고 음악을 통하여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음악교육의 목표이자 당면 과제라 하겠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음악 교육을 받는다면 인간은 본래 음악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공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음악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아동들이 처음에 음악교육에 입문할 때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 이다. 피아노는 보급이 보편화 되고, 피아노의 악기 특성상 음역이 넓고, 악보와 건반의 높낮이에 대한 관계가 아동들에게 쉽게 인식 될 수 있다. 또 음정이 고정되어 있어 음감의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악을 배움으로서 정서적인 자극과, 새로운 지식습득에 대한 지적 자극, 손가락의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적인 자극으로 아동발달에 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1) 박영수 ,(1988). 『피아노 주법과 교수법』,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미치기 때문이다.²⁾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피아노 교육은 교재를 중심으로 교사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재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올바른 피아노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재는 피아노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입문서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기초 교재연구와 피아노 교사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통하여 아동기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실제 피아노 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동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은 전공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능적 교육만이 아니라 피아노 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교육, 개인의 미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교양교육으로 인식하고, 기능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의 연령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교육적인 효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아동의 감각개발을 위한 교육에 중점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음악적 발달에 따른 특성에 대한 이해, 피아노 교

2) 김선에, (2002). 초급 피아노 교재의 비교 분석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육의 중요성, 20세기 피아노 교육의 흐름에 대한 문헌 연구와, 아동이 피아노 초급과정에 입문할 때 사용하는 교재 중 바이엘·베스틴·알프레드 교재를 채택하여 각각의 내용과 특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교재의 장단점과 보완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지역 피아노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빈도와 인지도, 아동을 교육하기 전에 교사가 교재선택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아동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교재에 대한 보완점을 통계 분석 하여 보다 나은 교재 선택과 학습과정 개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연구의 제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출판되는 초급교재 중, 바이엘 연습곡 1번부터 본격적인 큰보표가 등장하기 전 단계로서 연습곡의 중간에 덧줄을 사용하여 예비적으로 큰보표 연습을 조금씩 다루고, 다른 교재와 단계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60번 연습곡까지 만을 교재 분석을 하였다. 베스틴 교재는 초급과정의 피아노 교재, 알프레드는 A급 예비과정 레슨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교재의 초급과정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초급교재의 입문과정에서 교수법의 특징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으로, 각 초급과정의 도입과정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전역 바이엘 교재는 초창기에 사용하던 전통적인 바이엘과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만 해도 수십 종이 넘으므로, 새롭게 편집되어 사용되는 바이엘의 교재 내용연구와 사용빈도는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교수법의 내용 전개상 바이엘의 원류는 같으므로 전역 바이엘 교본으로 정하여 타 교재와 비교하게 되었다.

셋째, 설문 조사의 경우 전국의 피아노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표본 집단이 너무 광범위 하여 서울 지역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들로 한정하였다. 설문 조사의 방법으로는 서울시내 교습소와 학원의 피아노 교사 모임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편물과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기독교음악대학과 성신여대 음악교육전공자들 중 피아노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여 많은 피아노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음악교육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유·아동기는 신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상태이고, 비사회적이긴 하지만 그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블룸(B. S. Bloom)은 출생 후 4세 까지 지능의 약 50%가 발달하며, 8세까지 약 80%, 13세 까지 약 92%가 발달한다고 하였다.³⁾ 만 5세에서 만 11세에 해당하는 유·아동기는 음악능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음악 감각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게 된다. 그 중 특히 감각기관으로서의 청각 기능은 5세쯤에 이르면 거의 성인수준과 비슷하게 발달하며 음고와 음색의 판별력 음의 순서화 능력, 음의 기억력 등 음악의 인지 능력, 리듬 감지 능력도 이 시기에 가장 급속하게 발달한다. 그러므로 만 5세부터 만 11세에 이르는 유·아동기는 음악교육에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이옥형·이종숙·임선빈 공저. (1992). 『교육심리학』. 서울 : 집문당

2. 음악교육과 피아노 학습

(1) 음악교육에 있어서 피아노의 특징

아동들에 대한 피아노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음악교육이다. 전문적인 음악인이 되기 위함보다 자신의 미적 감성이나 자연스러운 정서 표현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서 널리 일반화되고 있다.

피아노 교육은 음악교육에 있어 음악의 전 영역에 걸쳐 기본이 되며, 음악 학습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수단이 되는 유용한 악기이다.⁴⁾

피아노의 특징을 살펴보면, 88개의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악기의 광범위한 음역을 수용할 수 있고, 건반악기와 타악기, 현악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악기이다. 건반을 사용하여 푸가와 같은 대위법적인 곡을 연주할 수 있으며 화성적인 표현을 통하여 독특한 색채감을 나타낼 수 있다. 타악기적인 요소로서 강약과 리듬을 표현해 낼 수 있게 하며 현악기적인 요소로는 선율적인 표현과 배음을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⁵⁾ 건반에 의한 음의 배열이 시각적으로 음의 높낮이를 구분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음악이론 공부나 음계의 구조와 화성을 실제로 활용하여 음감 훈련에도 효과적인 교육

4) 김선애. 전개서.

5) YAMAHA MUSIC MEDIA COPRATION, 상지원 역, (1995). 『피아노를 읽는 책』. 서울 : 상지원.

용 악기라 할 수 있다 6)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피아노는 전반적인 음악적 세계를 집약하고 있는 악기이며 음악교육의 보다 기초적이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2) 피아노 교육의 의미와 가치

피아노 교육은 예능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미적 자극은 물론이고 일반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지적 자극 그리고 체육 등을 통해 얻어지는 신체적 자극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 뿐만 아니라 종합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7)

지적인 자극에서 오는 발달 중에 우선 뇌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피아노를 치려면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악보를 읽으려면 수많은 음악적 기호들- 여러 종류의 음표와 쉼표, 오선 보표, 손가락 번호, 빠르기 기호, 표현적 기호 등-을 이해하고, 비교하고, 연관시키고, 종합하고, 응용하여야 함으로, 어떠한 개별적 배움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이해하고 연결하며 구성하는 종합적인 능력의 성장을 돕는다. 이 밖에도 아동은 피아노를 배우며 연습과 반복을 통하여 암기력의 발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신체적 자극에서 오는 발달은 손가락의 움직임, 건반의 타건, 페달 사용 등

6) 이현자, (1998). 음감 개발을 위한 솔페이지 및 리듬교육. 『피아노 음악』. 4월. 서울 : 음악 춘추사.

7) 차홍숙, (2002). “취학전 아동에 대한 피아노지도의 효율적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으로 운동신경과 운동 기능 향상을 들 수 있는데, 단순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니라 손목, 팔의 앞부분이고 윗부분 어깨를 포함한 상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페달에 필요한 발은 사용은 신체적 자극을 유발하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눈, 손, 발, 몸 전체의 사용은 근육운동과 신경계통이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뤄 뇌의 균형적인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피아노를 통하여 미적 자극을 얻을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소리를 통한 청각각각이 발달하며 이를 통하여 소리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섬세해 지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정서가 순화되고 미적 감각이 발달 된다고 하겠다. 또한 여러 종류의 음악을 대함으로써 미적 감각과 반응의 폭을 넓게 하여 아동의 표현력과 감성 계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피아노 연주를 통하여 자신이 만든 음악을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내면화하여 발표하는 행위로 이를 통하여 발표력과 표현력의 신장, 자신감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고, 피아노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규칙적인 시간에 자신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고, 곡을 완성했을 때 아동들은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테크닉의 해결했다는 성취감에 점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품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아노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교육의 효과는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지성, 감수성, 심성의 계발과 운동 신경 등 신체적 발달도 얻게 되고, 표현력 자신감, 성취감, 인내력 등의 학습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피아노 교육은 단순한 음악교육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피아노 교육의 흐름

1709년에 피아노가 처음 만들어지고 1850년을 전후로 하여 피아노의 보급과 함께 피아노 교재가 처음 발간되기 시작한 이후, 피아노의 연주와 지도 방법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새로운 교재들이 나오게 되었다.

피아노가 존재하고 처음 100년간은 공인된 세 가지 원리가 지배 하였다. 첫째 오직 손가락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기교의 훈련은 매일 장시간의 연습을 필요로 하는 순수한 기계적인 과정이다. 셋째, 교사는 절대적인 권위자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레멘티(Muzio Clementi 1752~1832)나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의 연습곡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교재이다. 8)

19세기 후반의 데프(Ludwig Deppe)의 교수법과 더불어 근대 피아노 교수법의 시대는 시작되었는데 데프는 그의 저서 「피아니스트의 팔 움직임」에서 종전의 손가락 위주의 연주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 손목, 손가락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조화 있게 움직임으로서 손가락을 통해 힘이 건반에 전달된다고 하였다.

20세기 초 교수법의 여러 저자들은 피아노 연주에서의 음악적 지식 개발과 청각, 리듬, 기교적인면의 상호관련성을 육성하는 교수법의 지지를 서서히 가중시켜 나갔다.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국의 피아노 교재는 독보력이나 리듬면 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생의 그룹지도에 의해 음악, 독보, 리듬학습, 음악적 연주 경험, 음악구조와 이론의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며, 1913년 신시내티와 다른

8) 송정이, (1989). 『피아노연주와 교수법』, 서울 : 음악춘추사,

여러 지역의 학교에 피아노 수업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의 교재를 개발하였다.⁹⁾

1955년 이후에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피아노 교재(Piano Method)란 용어에서, 교재는 내용과 구성면에서 단순한 재래식의 피아노 교본과 구별되어 새로운 형태의 종합적인 피아노 교과서를 일컫는 말로 한사람 혹은 여러 명의 제자들에 의해 씌어진 여러 권의 책이 체계적인 하나의 교본을 말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교재로 베스틴과 알프레드 교재가 있다. 1976년에 출판된 베스틴 피아노 교재(Bestin Piano Library)는 1963년에 베스틴 부부가 여러 조성에 의한 교습교재를 만든 <Music through the Piano>를 좀 더 발전시켜 다시 내놓은 것으로 여러 개의 시도법이기는 하나 흔히 쓰는 방법은 아니다. 기본음의 제시는 각 과정의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소개되며, 민속음악과 창작곡도 각 수준에 맞추어 실고 있다.¹⁰⁾

20세기의 근대 피아노 교수법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던 19세기 교수법이 차츰 사라져 감에 따라 음악적 지식 개발과 청각, 리듬, 기교적인면의 상호작용으로 육성하고,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적 잠재의식을 일깨워 주며, 음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9) 맥스 캠프.(1995), 『피아노 연주법』,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0) 박지은.(2000). “피아노 초급교재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3. 선행연구 고찰

그 동안 피아노교육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기 음악교육의 방법과 초급과정 교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되고 다양한 각도로 활발해 지리라 생각된다. 이번 단락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가진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지영(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은 그의 논문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안”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아동기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음악적 성장에 기초가 되는 기본개념인 음색, 리듬, 선율, 빠르기, 형식 등을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내용 및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피아노 지도에 있어서 처음부터 수동적, 주입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것 보다 전조작기 아동의 특성에 맞게 놀이나, 신체표현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의 예비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¹⁾

이은주(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도 그의 논문 “유·아동기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법”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근거로 어린이의 성장발육 수준이나 음악에 대한 반응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음악적 능력을 잘 관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는 피아노 교수학습에 앞서 교수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목표로는 연주기

11) 이지영, (2001).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안,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슬영역, 감성적 영역, 인지능력의 개발과 창조성의 개발과 두뇌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재 선택에 있어서도 아동의 연령, 신체,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했다. 유아동의 상상력과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색감과 친근감 있는 내용의 삽화가 있는 교재를 선택하고, 여러 교재들의 장점을 찾아 보완하여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였다.¹²⁾

차홍숙(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의 논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피아노 지도의 효율적 방향 연구”에서는 대부분 음악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아동의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단계나 음악적 배경이 간과 되어진 채 피아노기교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피아노 지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에서 다수의 아동들이 5~7세에 피아노 교육에 입문하나 발달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기보법에 대한 음악적 요소의 개념들을 이해시키려는 무리한 교육으로 인하여 많은 아동들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아노에 대한 흥미 반감, 실증 및 중도 포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 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발달단계의 이해와 현행 기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의 유형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음악 활동을 위한 실재적 교재의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설문을 사용하여 피아노 지도의 실태를 조사 분석 하였는데

12) 이은주, (2001). “유·아동기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법”,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취학 전 아동의 음악교육과 피아노 지도에 있어서 다양한 음악놀이 활동이 병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로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취학 전 아동의 비율이 46%로 교재는 바이엘 60%, 베스틴 5%, 알프레드 10%, 아 마테우스 3% , 기타 2% 순으로 나타났다. 교재선택의 기준으로는 지명도 8% , 내용 54%, 흥미 16%,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의 짜임을 보고 교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들의 흥미와 음악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학 전 아동의 피아노교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인내심 부족이 46%를 차지하여 그 시기 아동의 집중력 시간이 약 10~20 분 사이이며 오래만 앉아 있게 하는 것도 무리하다고 하였다.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흥미로운 교재를 사용한다가 48%로 제일 많아 아동들의 흥미에 부합된 학습과제를 가진 교재 선택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피아노 교사에게 다양하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아동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학습목표를 세우고, 음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교육을 아동에게 적용한다면, 피아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하며 피아노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13)

이상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하여 취학 전 아동의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과 교재선택에 대한 논문에 대하여 보았고, 1990년부터 활발하게 연구된 기초교재의 비교분석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성림(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은 그의 논문에서 바이엘 교재와 미국의 톰슨, 베스틴, 프랑스에서 도입한 메토드로즈, 글로버, 매

13) 차홍숙, 전게서.

직리더, 어린이의 우주, 새로운 피아노 교본, 페이스, 알프레드, 베스틴, 어린이 클래스 피아노 등 무려 11가지나 되는 피아노 교재들을 분석 연구하였다. 교재들을 '중앙 C 접근법'과 '여러조성접근법', '음정 독보에 의한 접근법'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교재들의 개념과 접근법을 알아보고 독보, 조성, 화음, 리듬, 박자, 테크닉 등을 관찰 분석하였다.

그러나 무엇 보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사가, 여러 가지 접근법에 의한 교재들 중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태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여 적용하여야 적절한 피아노 학습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⁴⁾

조경옥(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은 그의 논문 "어린이 피아노 학습의 기초교본 및 설문을 중심으로 한 실태 조사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초교본의 사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로는 피아노 전공의 교사가 48%로 제일 많았고 이들은 유아교육이나 교육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었는데 설문의 대상이 음악학원, 교습소의 운영자들로 한정되어 나온 결과였다.

교재선택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피아노 실기 교육 시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독보력 , 이론, 리듬 가락 화성에 대한 감각의 순으로 나타났다. 테크닉의 발달이 후순위로 나타나 단순한 기술 습득에만 의존해온 과거의 피아노 교육과 달리 어린이에게 음악에 대한 감각 증대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김성림, (1992). "피아노 기초과정의 지도를 위한 교재의 비교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출판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인식으로는 교사의 대부분이 바이엘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아노를 배웠을 때에 사용했던 교재라 익숙하여 다시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알프레는 교본은 1981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수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33.3%의 인지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당시에 그 전에 나온 교재 들 보다 홍보가 많이 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창작 교본들로는 새로운 바이엘과 새로운 피아노 교본이 많이 알려졌는데 두 가지 교본 모두 출판사는 같은 세광출판사의 교본이었다. 베스틴 교본은 17.33%로 1990년에 조사된 것 보다 두 배의 인지도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것은 한국 베스틴 연구회가 베스틴 교재 보급을 위하여 교재의 장점과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였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이 번역 교본을 사용할 경우 어린이의 흥미를 갖게 하는 악곡이 부족하여 우리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요나 민요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 새로운 피아노 교본과 같은 창작 교재의 개발과 사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올바른 어린이 피아노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현대감각에도 잘 맞으며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속선율을 포함한 것으로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본을 선택하여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김선애(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는 그의 논문에서 교재의 접근 방법에 관하여 선택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교재는 교육의 목

15) 김선주, (1993). “어린이 피아노 학습의 기초교본 및 설문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가 되므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일관성 있게 체계를 세우고 이에 따라 선택에 있어 아동의 능력, 수준, 연령,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반 접근 방법에 의한 방식

건반 접근 방법에 의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온 다 방식’, ‘다조 (多調) 방식’, ‘음의 간격과 높이에 의한 방식’ 이다.

먼저 ‘가온 다 방식’은 가온 다음을 중심으로 음의 높낮이를 학습하게 되는데 조성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인 3화음을 따랐으며, 이론이나 독보력 향상에 중점을 두기보다 연주를 위한 많은 곡을 익히도록 훈련하는데 효과적이다.

‘다조 (多調) 방식’은 어떤 음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 음을 으뜸음으로 삼아 그에 맞는 조성과 화음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으로, 12개의 모든 조성을 배워 올림표, 내림표, 제자리표를 사용하여 검은 건반도 익숙하게 한다. 아동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우나 이것을 마스터 했을 때 ‘가온 다 방식’방식으로 훈련한 아동들 보다 더 향상된 기량을 얻을 수 있다.

‘음의 간격과 높이에 의한 방식’은 재래의 ‘가온 다’에 의한 접근 방법과 ‘다조 (多調) 방식’을 혼합한 방법이다. 처음에는 무보표 기법을 사용하여 음정 관계에 따라 독보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절대적인 음의 위치를 배우지 않는다. 그 후에 보표로 넘어가면서 이미 배운 음정 관계에 따라 악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시된 음을 기준으로 하여 높고 낮음, 음과 음사이의 간격으로 음표를 학습하게 하여 위에 제시한 두 가지 건반 접근 방식보다 아동들이 쉽게 배울 수는 있으나 악보를 배움에 있어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

㉠ 악보와 악보 읽기에 의한 방법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에서 음자리의 정확한 구분, 보표의 위, 아래, 어느 쪽으로든 능숙하게 음자리를 읽을 수 있고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성부를 자유롭게 읽어 내기 위해서 교재는 단계적인 음악 읽기, 초기에는 보표 없이 시작하여 단계적인 보표로의 이동하기, 건반 전체를 포함, 올라가기와 내려오기, 순차 또는 도약진행과 같은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응용되어야 하며 과제곡에서 효과적으로 응용되어야 한다. 교재는 음악을 읽기가 쉽고,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응용되어야 한다.

㉡ 리듬과 테크닉에 의한 방법

리듬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교재는 이론적인 리듬을 소개하기 전에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듬을 느끼고 표현하는 훈련과 지속적인 리듬연습, 또는 교사의 반주의 추가로 리듬학습을 도와야 한다.

테크닉 역시 초기 음악 학습에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음악이 요구하는 소리를 가장 이상적인 음질과 음량으로 올바른 템포와 기교로 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배양일 것이다. 테크닉의 향상을 위한 교재는 바른 자세와 레가토,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성부간의 독립적 처리, 아르페지오, 반음계, 옥타브 등의 내용이 골고루 명시되어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음악 이론에 의한 학습

주 교재 안에 이론이 포함되거나, 따로 이론 교재를 병행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피아노 교재는 음악이론이 강조되어야 한다. 초급 교재의 경우 다음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조표, 음정, 장·단조의 음계와 화음, 음악 기호와 용어, 음표, 쉼표 등이 그것이다.

㉔ 전체의 구성 및 짜임새

교재의 구성과 짜임에 있어 연령층 및 지도 대상에 따라 구성이 달라져야 하고, 수준별로 등급이 나누어져야 하며, 각 등급은 전체적인 길이가 일정한 기간에 한 단계씩 발전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분야별로 나뉠 경우, 각 등급에서는 주 교재와 병행교재, 그리고 다양한 보충교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음표와 글자의 크기, 삽화, 색상 등이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어야 하며 특히 기초를 배우는 아동들에게 학습 동기를 심어 줄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본 내용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단계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학습목표의 설정, 신 교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가 한가지의 교재만을 선택하여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교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현실에 맞는 교재를 골라 취사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자신의 지도 목표가 뚜렷하게 제시 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교사의 탐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Ⅲ. 피아노 초급과정 교재 특징과 비교 분석 및 평가

앞으로 분석할 교재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는 본 논문에서 앞서 이야기한 정완규의 교재선택의 기준과 선행연구 고찰에서 소개한 김선애의 교재선택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교재의 평가 기준을 건반 접근 방법, 악보와 악보 읽기에 의한 방법, 리듬과 테크닉에 의한 방법, 음악 이론에 의한 학습, 전체의 구성 및 짜임새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을 세워 보았다.¹⁶⁾

㉠ 기본자세 ㉡ 건반접근방법 ㉢ 예비악보 음표, 쉼표, 박자표인식 ㉣ 계이름, 음이름 인식 ㉤ 오선 보표 접근 ㉥ 음정학습 ㉦ 조성학습 ㉧ 테크닉 ㉨ 음악용어

1. 바이엘

(1) 바이엘 교재의 특징

「바이엘 피아노 교본」은 독일인 음악가 페르난디트 바이에르(Fernandid Beyer 1803~1863)에 의해 엮어진 교본으로 우리에게 「바이엘」로 친숙하나 원제는 「Vorschule im Klavierspiel op.101」이다. 「바이엘 피아노 교본」은 작품번호로 보아 1850년경에 출판된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에 바이엘이 소개된 것은 일제시대로, 1876년 일본에 초청된 미국 교육자 메이슨(L. W. Mason)을 통해 일본에 들어갔다가 한일합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지금까지

16) 정완규, 전게서.

김효정, 전게서.

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7)

이 교본은 피아노교재로서 오랫동안 친숙한 교본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 사용되는 교재로서 〈피아노 교본=바이엘〉이라는 고정관념이 상식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혹자는 이 교재와 교수법이 매우 낙후되었다고 멀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피아노 기초교재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피아노 교재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18)

이 교재는 구성 면에서 검토해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조직적, 계통적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바이엘이 요구하는 이른바 독일 고전부터 초기 낭만파에 걸친 기능화성으로 지배되던 음악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화성진행의 필연성을 익힐 수 있다.19)

실제로 바이엘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사용해온 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은 독보에 상당한 실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난 150여 년 동안 바이엘이 교본의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바이엘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피아노에 입문하는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제점은 더더욱 커진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바이엘은 표준판 바이엘과 바이엘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귀에 익숙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악곡들을 첨가하여 새롭게 편집한 바이엘, 이렇

17) 김은영. 전게서.

18) 황보순, (1992). “피아노 초급교재들의 비교 분석 연구-바이엘, 베스틴, 클라비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음악테크놀로지 대학원.

19) 김은영 전게서.

계 두 가지의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것을 바탕으로 현재 시중에서 출판되는 바이엘을 출판사 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국내 시판중인 바이엘 (* 조사장소 - 2003년 4월 영풍문고)

출판사	교본명
세광출판사	바이엘 피아노 교본 101번
	어린이 바이엘 상, 하
	세광 바이엘 1,2,3,4,
	세광 뉴바이엘 1,2,3,4,
	동화바이엘 1,2,3,4,
	마스터 어린이 바이엘 1,2,3,4
	새로운 어린이 바이엘1,2,3,4
	레벨 뉴바이엘 1,2,3,4,5,6,7,8
	이지 바이엘1,2,3
	도도바이엘 1,2,3
	현대음악출판사
현대판 어린이 바이엘 상, 하	
새로운 현대 바이엘 상, 하	
리틀 바이엘 1,2,3,4	
태림출판사	해피 바이엘 1,2,3,4
	태림판 어린이 바이엘 상,하
	새로운 태림 바이엘 1,2,3,4
삼호뮤직	안혁 피아노 스쿨 I LOVE 바이엘 1,2,3,4
	어린이 바이엘 상,하
	삼호 바이엘 1,2,3,4
일신서적출판사	남주희의 신나는 바이엘 1,2,3,4
	바이엘 전역 피아노 교본
	음악나라 표준 어린이 바이엘 상,하
	새로운 일신 바이엘 교본 1,2,3,4
음악세계	음악나라 텔런트 바이엘 상,하
	어린이를 위한 음악세계 바이엘 상, 하
	음악세계 신나는 바이엘 1,2,3,4
다라	베니와 함께 배우는 어린이 바이엘 1,2,3,4
	어린이 재즈 바이엘
이름출판사	어린이 바이엘 상,하
음연	21세기 음연 바이엘 상, 하
동서출판사	동서 뉴바이엘 1,2,3,4

바이엘의 형태는 응용과 이론을 첨가하여 상, 하권의 두 권으로 나뉘어 지거나 4권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랜 기간 다양하게 변화 발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바이엘 교재 분석

(전역 바이엘 교본-Vorschule im Klaveirspiel Op.101)

㉠ 기본자세

피아노 건반을 향하여 그 중앙에 의자를 놓고 상반신을 바로 하여 어느 부분에든 힘을 넣지 않고 자세를 바로 잡아 앉는다. 의자의 높이는 건반과 무릎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피아노와 자리의 거리도 체격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²⁰⁾

바이엘은 손가락의 운동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은 천천히 연습하도록 하고, 타건은 너무 세지 않게 하고, 손가락의 근육이 긴장해서 근육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손가락엔 번호를 붙여 읽게 하는데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여 1~5번까지 오른손과 왼손 각각 같은 모양의 손가락이 같은 번호를 가지게 되고 오선보의 음표위에 붙은 번호가 그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의 번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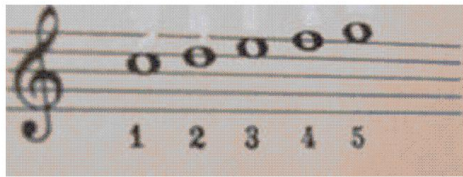
㉡ 건반접근방법

오른손 연습곡 1번연습곡'~ 24번연습곡에서 4분음표(♩)를 기본 박으로 하고

20) 바이엘. (1980). 『전역바이엘 피아노 교본』, 서울 : 일신서적출판사, p13.

점2분음표 (□□)와 온음표(□□)를 사용하여 3박자 , 4박자의 연습곡을 도돌이표(: □□)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하여 연습한다. 기본 위치는 '가온다'에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자리의 '도'에서부터 '솔'까지의 건반을 사용한다.

<악보1> 오른손 연습 기본자리



㉔ 예비악보 음표, 쉼표, 박자표인식

전역 바이엘은 예비악보를 채택하지 않고 교재의 처음부터 오선보표를 사용하고 있다. 음표와 쉼표 박자표는 9~13면에서 초보적인 악전의 전반적인 해설에서 미리 설명해 두고 있다.

┌ 4분음표	□□ 2분음표	□□ 점2분음표	□□ 온음표
1박(하나)	2박(하나-둘)	3박 (하나-둘-셋)	4박(하나-둘-셋-넷)

박자에 대한 설명으로, 초보적인 악전에서 소개된 박자의 종류는 2/4박자, 3/4박자, 4/4박자, 6/8박자, 3/8박자, 9/8가 있다. 모두 2박자의 계통이나 3박자의 계통에 속한다. 본 교재 중 연구하고자 하는 1~60번 연습곡 중에서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8분의 3박자 연습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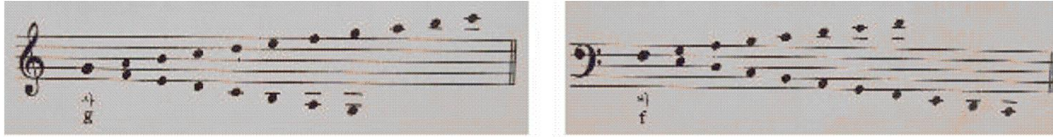
㉔ 계이름, 음이름 인식

본 교재에서는 초보적인 악전에서 보표와 건반의 접근에서 음이름과 계이름 읽는 법을 설명하고, 우리말 음이름“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와, 독일어 음이름“C D E F G A H”, 계이름“Do Re Mi Fa Sol La Si”를 소개하고 실제 연습곡에서는 따로 음이름과 계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다.

㉕ 오선 보표 접근

교본의 도입부인 초보적인 악전에서, 5선보표가 ‘줄’과 ‘칸’으로 이루어져 각 음의 높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고, 이것으로 제 각기의 음이 지닌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음자리표를 사용한다. 바이엘에서 사용되는 음자리표의 종류에는 ‘높은음자리표(G Clef)’와 ‘낮은음자리표(F Clef)’가 있는데 53번연습곡 까지 높은 음자리표를 사용하고 54번연습곡에서 낮은 음자리표가 처음 나타난다. 높은음자리와 낮은음자리표를 괄호로 묶음 보표를 큰보표라고 하고, 같은 음자리표 두개를 괄호로 묶은 악보도 큰보표라고 부르고 바이엘에서 큰보표는 양손이 ‘위의 자리’와 ‘가운데 자리’에서 연주하는 3번연습곡부터 나오고, 53번연습곡 부터, 왼손의 자리가 높은음자리표 가운데자리에서 낮은음자리표로 잠깐씩 이동하였다가 다시 높은음자리표 가운데자리로 돌아와 5선보표의 아래 덧줄 계이름 읽는 법을 익힌다. 본격적인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를 사용한 큰 보표는 61번연습곡 이후에 있다. 보표에서 5선을 세로로 나눈 선을 세로줄이라 하고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마디라 한다.

<악보2> 높은음자리 보표와 낮은 음자리 보표



① 음정학습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연습부터 위의 도 자리를 중심으로 2도, 3도, 4도,5도까지의 음정 관계가 제시되고, 왼손연습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자리의 2도, 3도, 4도,5도의 음정관계가 제시되며,가운데 '솔'자리를 중심으로 한 왼손 연습곡(세손연탄)중 6번 변주곡은 가운데 '솔'자리를 중심으로 한 5도권의 음정의 도약이 있다. 양손 연습곡(네 손 연탄)과 옥타브에서는 8도 음정관계를 설명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각각 위의 자리와 가운데 자리에서 같은 계이름을 연주하는 것으로 옥타브가 되는 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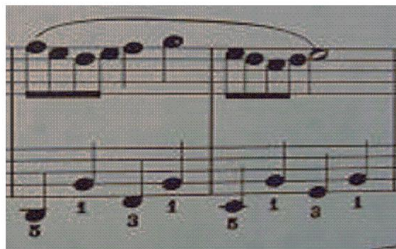
⑧ 조성학습

바이엘 교재에서는 다장조 외에 조성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자리인 솔(G)의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조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32번 연습곡에서부터 '도(C)'자리에서 벗어나 '솔(G)'를 중심으로 하는 연습곡이 나와 기본자리에서 익혔던 손가락 번호를, 다시 솔을 중심으로 하는 자리에서 다시 계이름과 손가락 번호를 익힌다.

⑧ 테크닉

바이엘 교재는 손가락 훈련을 위한 테크닉을 위주로 한 악곡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양손 연습이 19번 연습곡에서 처음으로 메조 스타카토(mezzo staccato)가 등장하여 레가토(legato)로 음과 음 사이를 이어서 연주하던 것을 음과 음사이가 살짝 끊듯이 떼어서 연주하게 한다. 29 번연습곡에서는 붙임줄을 이용하여 뒤에 따라오는 음을 치지 않고 지속하는 연습, 46번연습곡에서는 왼손반주에서 처음으로 손가락을 벌려서 5도 음정을 벗어나 6도 음정을 사용하고 있다.

<악보 3> 왼손 반주



① 음악용어

바이엘 교재의 특징은 음악이론의 전반적인 기초적 상식을 교재의 맨 앞부분 실기 학습이 들어가기 전에 '초보적인 악전'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초보적인 악전'에서는 오선, 음자리표, 음정, 음표와 쉼표의 길이, 보표, 변화표 또는 임시표, 박자와 마디, 반음계, 띠이름 한소리, 옥타브의 건반과 음이름(계이름, 우리나라 음이름, 영어 음이름)의 관계, 바른 자세 등을 다루었다.

1번 연습곡에서부터 59번 연습곡까지 나와 있는 음악용어는

∥ : ∥ 도돌이표(Repeats, 그 부분을 반복)

알레그레토(Allegretto, 조금 빠르게)

모데라토(Moderato, 보통빠르기)

코모도(Comodo, 보통빠르기로 ,경쾌한 기분으로)

레가토(Legato,원활하게)

타이(Tie, 높이가 같은 두 음을 한음처럼 연결하여 연주)

안단테(Andante, 느리게)

옥타아브(Octava, Octave)

슬러(Slur.이음줄)

포르테(f,세게), 메조포르테(mf, 조금세게), 피아노(p, 여리게)

크레센도(cresc. 점점세게), 데크레센도(dim. decresc. 점점 여리게)

악센트(>, 그 음만 특히 세게 친다)등이 있다.

2. 알프레드

(1) 알프레드 교재의 특징

알프레드 피아노 교본은 미국의 알프레드 출판사에서 피아니스트 이자 음악 편집자인 팔머(Willard Plamer)박사, 피아노 교육자인 레츠코 여사(Amanda Lethco), 동요작곡가인 매누스(Morton Manus)에 의해 1981년 출판되었다. 21)

어린이의 자발적인 학습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교습방법에 중점을 두고 , 현

21) 송정이, 전게서.

대적 감각의 음악에 대응하도록 지도 훈련시키고자 한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습을 시작하는 연령의 차가 다른 것을 감안하여 나이와 능력에 맞게 적절한 교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예비 과정, 본 과정, 통합과종, 성인과정의 교재로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 이고 단계적인 학습과정에 의해 진도가 편성되어 있어, 제시된 악곡들의 난이도 조절에 도움을 준다. 또한 주 교재와 보충교재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인 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문헌적인 내용의 첨가된 악곡들의 시대적 배경, 작곡가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하여 작품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

알프레드 교재는 레슨교재, 이론교재, 테크닉 교재, 청음교재, 응용곡집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슨교재는 각급의 어린이에 맞게 피아노 기본개념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소개되고, 방금 배운 개념을 활용하여 연주 할 수 있는 악곡이 따라서 나온다. 이론교재는 레슨교재에서 배운 피아노 개념을 복습하는 학습지로, 음악 개념이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임과 문제풀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필기학습이 주를 이루며 청음교재에서는 레슨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리듬, 선율, 화성에 대한 청각훈련은 물론 나타냄 말과 강약, 빠르기말에 대한 이해를 시각적·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응용곡집은 레슨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여 연주 할 수 있는 음악의 작품집으로서, 초보자에게 다양한 음악에 대한 경험과 독보력을 향상시킨다.²²⁾

22) 이해진,(2001). “미국의 피아노 기초교재 비교 분석- 베스틴 알프레드 교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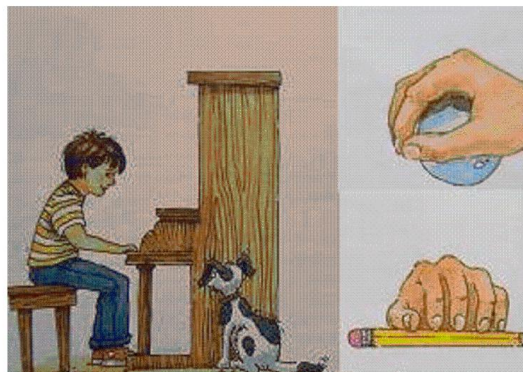
(2) 알프레드 교재분석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 라이브러리 예비과정 A급 레슨교재)

㉠ 기본자세

피아노에 앉는 자세, 손모양, 손가락 번호 붙이기를 통해 바른 운지법을 배우고, 피아노 건반을 세게 또는 여리게 두드리며 음색을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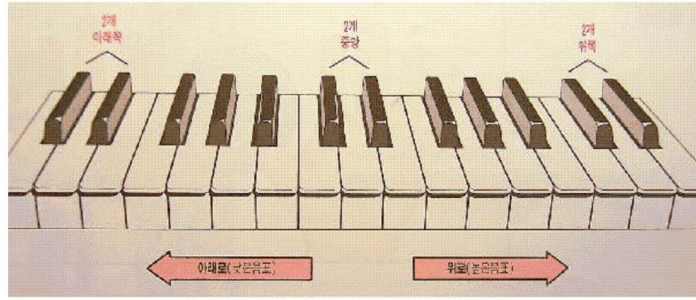
알프레드 교본에서는 먼저 자세를 익힌 다음 피아노에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검은 건반을 먼저 배움으로써 학습자가 검은 건반에 친숙하게 된다.



<그림1> 바른 자세와 손모양

㉡ 건반접근방법

검은 건반을 사용하여 2개 3개씩 모여 있는 위치를 찾고 높은음과 낮은음의 개념을 이해한다. 그림을 통해서 코끼리의 코에서는 낮은 소리, 생쥐의 플루트에서는 높은 소리가 난다고 설명한다. 이웃해 있는 건반은 이웃해 있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게 한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그림2> 검은 건반을 통한 접근 방법

검은 건반으로 피아노 음정의 고저를 학습한 후에 '중앙 도' 방식을 이용하여 건반에 접근하는데 처음 '중앙 도' 음에 양손 엄지손가락을 놓고 다섯 손가락의 범위 내에서 계이름을 하나씩 옆으로 확장해 나가며, 오른손 왼손을 각각 같은 번호의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며 계명을 읽으며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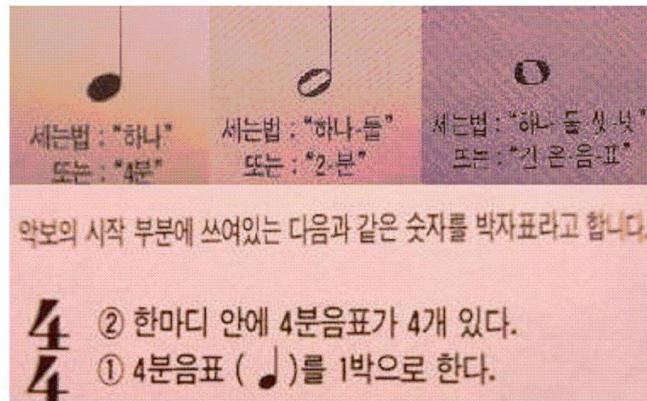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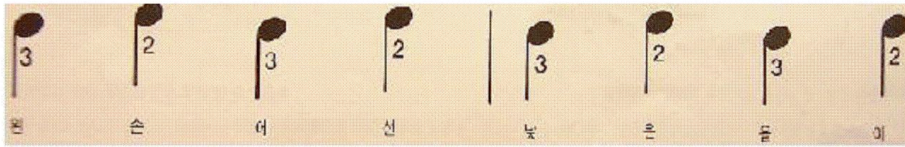
㉔ 예비악보 음표, 쉼표, 박자표인식

알프레드 레슨교재에서 예비악보는 '중앙도'를 기준으로 하여 오른손 왼손 각각의 손가락 번호에 해당하는 건반의 음높이를 음표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그려 넣음으로서 시각적으로 보표에 그리지 않고도 음표 그림을 보고도 음의 높낮이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음표는 J (4분음표)를 시작으로 □□ (2분음표), □□ (온음표) 순서로 음가가 작은 것에 점점 큰 것으로 가르친다. 세로줄, 마디, J 세는 법을 보여준다. 세로줄은 4분음표가 똑같이 4개씩 들어있는 마디를 나눈다는 것을 알려주고,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몇 개 들어 있는지를 세어 보고 박자표를 어떻게 읽는지 설명한다. 쉼표는 예비과정 A급 레슨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B급에서 4

분셈표와 온셈표의 개념이 설명된다.

<악보3> 예비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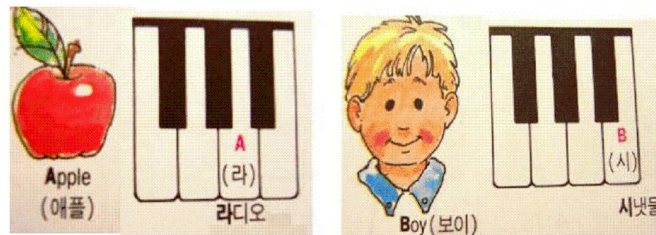


<그림3>음표와 박자표 인식

㉠ 계이름, 음이름 인식

레슨 교재 시작 부분에서 검은 건반을 통한 건반 접근을 함으로서 검은 건반이 3개씩 모인 부분을 찾아 라(A)의 음이름을 익힌다. 라(A)음을 건반에서 가장 낮은 음이름으로 인식하여 라(A)음에서 시작하여 솔(G)음까지 계이름과 영어 음이름을 차례로 배운다. 라(A)음에서 시작하여 흰건반을 치며 음이름을 불러 봄으로서 건반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음도 점점 높아진다는 개념을 숙지시키고 계이름과 음이름을 외우게 한다. 또한 어떤 희 건반이든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운데 양손모두 가운데 3번 손가락을 사용하여 건반을 눌러 손가락 모양이 둥글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영어 음이름과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사용하여 아동에게 흥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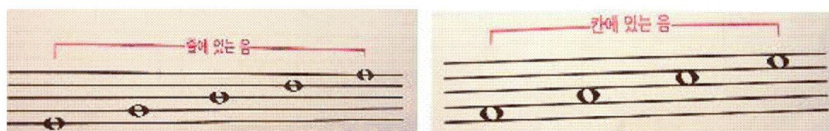


<그림 4> 영어단어와 그림으로 설명하는 음이름과 계이름

㉔ 오선 보표 접근

악곡은 4개의 칸과 5개의 줄로 이루어지 5선으로 된 악보를 사용하여 연주되며, 줄과 칸에 놓여 있는 음표를 능숙하게 읽기 위해 줄과 칸을 세는 훈련하는 부분이 시작된다. 5선아래에 그려진 빈칸에 줄과 칸을 구분하여 학생이 쓰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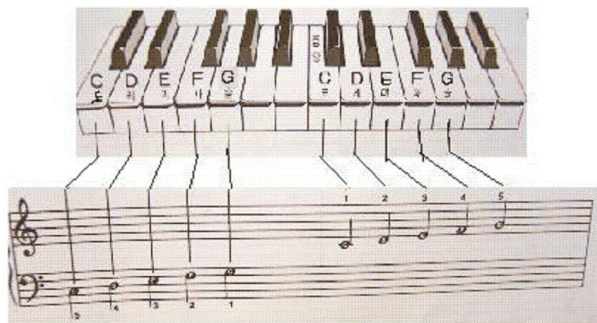
<악보 5> 보표



이 교재는 낮은 음자리표(□□)가 먼저 등장하며 알프레드 교본이 강조하는

음정 독보법(interval reading)²³⁾이 시작된다. 교사는 학생에게 파(F)음을 중심으로 낮은음자리표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여 낮은음자리표의 모든 음의 자리를 알아내게 한다. 36면에서 높은 음자리보표에 대한 설명으로 솔(G)음을 기준으로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진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낮은음자리 보표를 보고 연습한 방식대로 음정독보법으로 악보를 읽으며 연습한다. 41면부터 큰보표를 사용하여 왼손과 오른손이 차례로 진행되는 연습곡이 A과정 끝까지 계속된다.

<악보 6> 큰보표의 사용



① 음정학습

알프레드 A급 과정에서는 차례가기에 의한 이웃한 건반과의 2도 음정이나 같은 건반을 눌러 지속음을 내는 정도이고, 아직 그 외의 음정관계는 학습하지 않는다. B급에 들어가서야 2도, 3도, 4도 5도의 음정관계 학습이 등장한다. 알프레드 교재에서는 음정 독보법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음정에 대한 설명을 그림과 노래 가사로 제시하고 있다.

23) 알프레드 A과정 레슨교재 교사지침서, 상지원, p32

① 음악용어

마디 , 세로줄, 끝세로줄

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온음표)

셈여림표- p(피아노,여리게) f(포르테, 세게) mf(메조포르테, 조금세게)

도돌이표 :||

박자표 4/4 , 3/4 ,

보표- 낮은음자리 보표, 높은 음자리 보표 , 큰 보표

빠르기말-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3. 베스틴

(1) 베스틴 교재의 특징

베스틴 교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교재로서 James Bastien, Jane Bastien 부부에 의해 1976년에 「Bestin Piano Library」와 1985년에 개정판인 「The Bestin Piano Basic 」으로 출판되었다. 이 교본은 다섯 단계 (초급·1·2·3·4급)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능력에 맞게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²⁴⁾ 이 교재의 독자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초급 편에 2종류의 교재가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하나는 초보 5~6세용 이며, 다른 하나는 보통 피아노를 시작하는 7~8세 용이다. 이 초급 과정을 끝낸 후에 1급으로 들어가게 된다. 4~7세 사이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예비과정용 꼬마피아니스트 교본은 A·B·C·D 급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습방법은 점진적인 '여러 조성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예비악보부터

24) James W Bestien, 성공적인 피아노 교수법, 성지혜 역, 음악춘추사 1990

악보 읽기 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재미있는 그림과 울동은 학습이 효과를 높이고 음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교재의 구성으로는 피아노 교본, 이론 교본, 테크닉 교본, 연주 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아노 교본은 주 레슨 교본으로서 다양한 악곡들을 제시하여 음악성을 발전시키고, 이론 교본은 피아노 교본과 병행하여 사용하며 피아노 교본에 나온 개념들을 강화하고, 특히 듣기와 쓰기를 통해서 즉흥연주와 작곡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테크닉 교본은 오른손 중심이 학습에서 탈피하여 양손을 같은 비율로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과 연습 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주 교본은 피아노 교본과 연결되어 학생들이 더 많은 음악을 연주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²⁵⁾

(2) 베스틴 교재 분석

(Bestein Piano Basics 새 번역에 의한 피아노 교재 초급편)

㉠ 기본자세

알프레드와 마찬가지로 처음의 시작을 자세와 손 모양, 손가락 번호에 대하여 그림으로 설명하고 손가락 번호에 맞춰 한 손가락씩 움직여 보도록 연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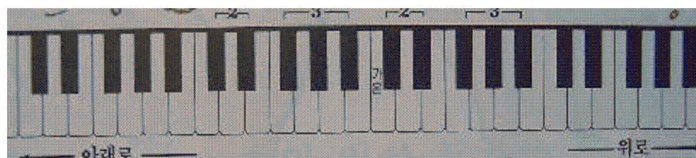
허리를 바로 펴고 피아노 의자와의 높이를 조절하여 손이 편하게 건반에 닿도록 올려놓고 의자에 앉는다. 손가락은 공을 쥐 것처럼 둥글게 구부리고 손목을 평평하게 한다. 종이 위에 손을 올려놓고 따라 그리면서 손가락 번호를

25) 이해진, 상계서 17p

쓰고 한 손가락씩 따라 움직이면서 손가락 번호를 읽는다.

② 건반접근방법

양 손을 따로 올려놓고 검은 건반에서 두개씩, 세 개씩 모여 있는 검은 건반을 찾아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따로 쳐보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한음씩 쳐보면서 가온다 건반을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의 개념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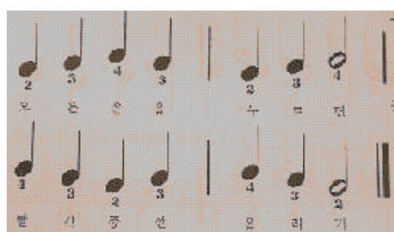


<그림 5> 건반 접근 방법

③ 예비악보 음표, 쉼표, 박자표인식

보표 없이 음정에 따라 기본적인 박자로 건반을 칠 수 있는 무보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악보 9> 예비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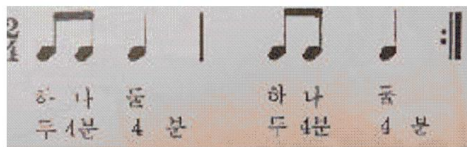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손뼉을 치면서 길고 짧은 음의 길이를 익히게 하고 음표들을 세로줄로 나누어 마디의 개념을 설명한다.

↓ (4분음표) □□ (2분음표)

세는 법 : 하나 하나 두울

46면에서 8분음표(♪) 세는 법을 설명하면서 8분음표 2개가 4분음표 1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손뼉 치면서 박자세기로 학습시킨다.

<악보 10> 8분음표 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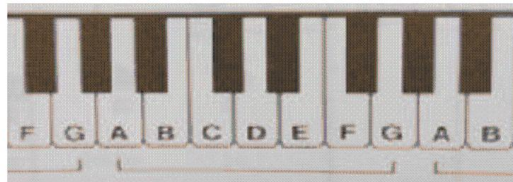


40면에서 처음으로 쉼표가 나오는데 음표와 같은 길이의 쉼표들을 나열하고, 쉼표는 음표와 같은 길이동안 곡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연주한다.

박자표에 대한 설명으로 예비악보과정 18면에서는 곡의 앞부분에 쓰인 두개의 숫자, 박자표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래의 숫자는 몇 분음표를 한 박자로 세었는가, 위의 숫자는 한마디 안에 들어 있는 박자를 나타낸다. 음이름 말하면서 박수치기로 박자를 세면서 2/4곡을 연습한다. 초급과정에서는 2/4박자, 3/4박자, 4/4박자의 곡을 학습한다.

㉔ 계이름, 음이름 인식

14면에서 음악에서 나오는 알파벳에 관한 설명으로 영어 음이름이 나오고 흰건반에 이름을 붙여 하나씩 위로 확장해 나가면서 음이름을 부르면서 건반을 쳐보고 반대로 알파벳을 거꾸로 부르면서 아래로 건반을 확장해 나가면서 음이름을 익힌다. 계이름을 따로 지정하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알파벳 음이름 연습 시 한글 음이름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학습시킨다. A(가)음부터 하나씩 흰건반에서 음이름에 해당하는 건반을 찾는 연습을 G(사)음 까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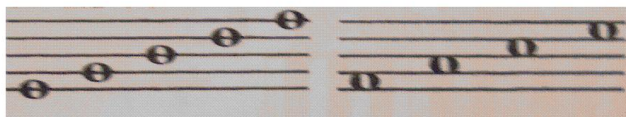


<그림6> 음이름 연습

㉕ 오선 보표 접근

24면까지 건반의 위치와 음이름, 음표, 박자 세기 등을 연습하고 복습한 후 예비악보 관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5선보표 학습이 등장한다. 알프레드 교재와 마찬가지로 줄과 칸으로 이루어진 5개의 선을 오선이라 부르며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오선위에 그리는 연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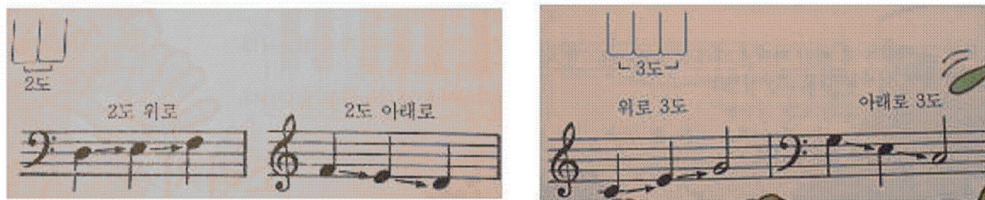
<악보 11> 오선보표



① 음정학습

음의 진행에는 차례가기와 건너가기, 반복하기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두음 사이의 거리를 음정이라 하고 제제 곡을 통하여 건반 사이의 간격에 대하여 학습한다. 2도, 3도, 4도, 5도 권의 순으로 학습하고 악곡을 통하여 한 가지씩 차례로 음을 듣고 흰건반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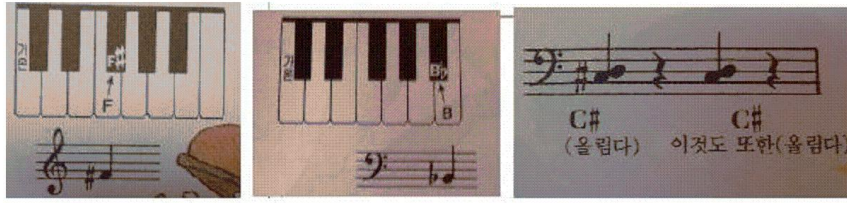
<악보 12> 음정 연습



41면에서는 왼손반주에서 세음을 같이 연주하는 모음화음과, 세음을 한 음씩 따로 연습하는 분산화음을 학습한다.

⑧ 조성학습

조표를 사용하여 조성을 가진 음악을 공부하는 악곡은 없으나 C(다) 자리 연습곡, G(사)자리 연습곡을 통하여 조성관계를 익히고, 임시표로서 올림표(♯)와 내림표(♭)를 이용하여 바장조 사장조의 곡을 익힌다. 임시표는 한마디 안에 있는 같은 음에 계속 영향을 주고 같은 음으로 쓰이는 것을 학습시키고 제제곡 안에서 왼손 반주 안에 임시표를 적용하여 학습 시킨다. 빈번한 임시표의 사용으로 무조성의 학습도 행해져 폭넓은 조성학습을 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으뜸 3화음의 연습은 C(다)장조 화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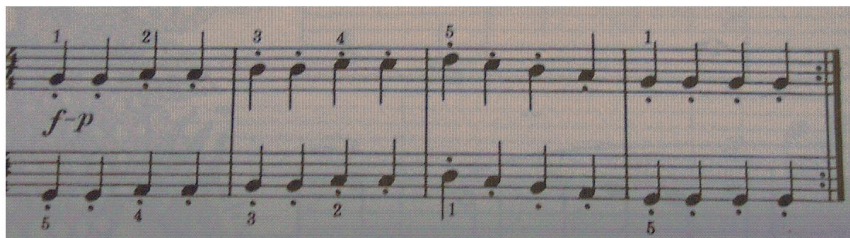


<그림7> 임시표를 이용한 조성변화

㉞ 테크닉

알프레드와 마찬가지로 베스틴 교재도 테크닉 교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테크닉 연습에 도움을 주지만 주교재인 피아노 교재 안에도 테크닉의 연습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무보표 방식의 예비 악보에서 레가토(legato)에 대한 언급이 있어 올바른 손 모양, 손목의 유연성, 손가락의 테크닉을 충분히 연습시킨다. 보표를 도입시켜 레가토를 충분히 연습 시킨 후 초급의 끝부분에서 스타카토(staccato)연습이 나온다. 초급교재에서셈여림표는 p(피아노)와 f(포르테)만 설명하고 있다. 33면과 34면에서 이음줄을 이용한 레가토(프레이즈, 부드럽게 연결하여 친다)연습과 같은 계이름을 줄로 연결하여 한 음처럼 연결하여 치는 붙임줄에 관한 공부를 하고 악곡을 보고 이음줄과 붙임줄을 학습시킨다.

<악보 13> 스타카토 연습



① 음악용어

마디 , 세로줄, 끝세로줄

음표- J (4분음표), □□(2분음표), □□(점2분음표) □□(온음표)

셈여림표- p(피아노, 여리게) f(포르테, 세게)

도돌이표 :||

박자표 2/4 , 3/4 , 4/4 ,

보표- 낮은음자리 보표, 높은 음자리 보표 , 큰 보표

음의 진행- 차례가기, 건너가기, 반복하기

오선에서 음표의 기둥그리기

이음줄(프레이즈), 붙임줄

레가토와 스타카토

임시표- 올림표(#)와 내림표(b)

화음 - 모음화음, 분산화음

빠르기말- Moderately(보통빠르기), Spookily(놀란듯이),

Bright boogie tempo (밝은 부기 리듬으로)

Bright(밝게), Lively(생기있게), Happily(행복하게)

Moderately fast(조금 빠르게), Slowly(느리게)

Fast rock(록 템포로), Mysteriously(신비스럽게)

4. 각 교재의 분석 비교 및 평가

(1) 각 교재의 비교 및 평가

㉠ 기본자세

바이엘은 바른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건반이 중앙에 상반신을 바로 하고 상반신의 어느 부분에든 힘을 넣지 않고 편안히 앉도록 제시하고, 의자의 높이는 건반과 수평이 되게, 피아노와의 거리는 체격에 알맞게 조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다. 바른 자세는 사진으로 첨부 되었으나 아동을 모델로 하지 않아 교사가 가르치는 아동에 맞게 설명에 따라 자세를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손가락 번호는 사진으로 첨부 되었으나 손가락 모양은 따로 설명이 없어 교사가 아동의 손모양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알프레드는 피아노에 앞에 앉을 때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그림으로 보여주고 허리, 윗몸, 팔, 무릎, 팔꿈치, 발바닥 등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손가락 모양은 비누방울을 쥐듯이 가볍게 힘을 빼고 연필위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 손가락의 길이가 고르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비누방울을 예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아동이 손모양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아 세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손가락 번호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손가락을 하나씩 들었다 올리는 연습을 통하여 손가락 번호를 인지시킨다.

베스틴은 그림과 함께 보조발판이나 의자높이 조절과 함께 자세를 설명하고 알프레드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직접 움직이고, 손가락을 손 모양대로 그리고 번호를 써보도록 하면서 손가락번호를 학습하고 손모양은 공을 쥐 것처럼 둥글게 구부리게 하였다. 이 내용을 <표2>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각 교재의 기본자세

교재명	기본자세
바이엘	상반신을 바로 하여 체격에 따라 의자높이를 조절하고 앉는다.
알프레드	신체 각 부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였다.
베스틴	허리를 바로 펴고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여 손을 편하게 놓는다.

<표2-1>

교재명	손가락 번호
바이엘	양손 같은 모양에 같은 번호를 붙인 그림으로 번호를 익힌다.
알프레드	손가락 번호에 따라 양손의 같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번호를 익힌다
베스틴	종이 위에 손모양을 그리고 손가락 번호를 따라 한손가락씩 움직여 익힌다.

<표2-2>

교재명	손모양
바이엘	손모양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다.
알프레드	비누 방울을 쥐듯이 둥글게 말아 손가락의 길이가 같게 되도록 구부린다.
베스틴	공을 가볍게 쥐듯이 말아 세우고 손목을 평평하게 한다.

<표 2-3>

㉞ 건반접근방법

바이엘은 '가온다'에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에서 '솔'까지의 건반을 사용하여 오른손 연습을 시작하고, 왼손은 '가온다'에서 '가운데 솔'까지의 건반에서 연습한다. 건반 접근에 대하여 따로 그림이나 설명이 없으므로 교사가

연습곡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에게 검은 건반이 두개와 세 개로 모여 있는 것을 설명하고 도의 자리를 찾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프레드는 검은 건반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하고 두개, 세 개씩 모여 있는 건반의 위치를 찾아 높은음과 낮은 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중앙 도'방식을 이용하여 건반위에 다섯 손가락을 올려놓고 건반을 하나씩 누르며 옆으로 확장해 나간다. 그림과 설명에 따라 아동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스틴은 양손을 따로 올려놓고 두개, 세 개씩 모여 있는 건반을 찾아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 쳐보고, '가온 다' 건반을 중심으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음이 높고 낮음을 이해한다. 베스틴 역시 따로 교사의 자세한 설명이나 지시가 없어도 그림을 따라 아동이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손가락의 모양과 번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표3> 각 교재의 건반 접근방법

교재명	내용
바이엘	초보악전에서 건반의 위치 설명후 바로 '위의자리 도~솔'건반에서 오른손 연습,'가온다 도~솔'건반에서 왼손 연습을 한다.
알프레드	검은 건반을 이용하여 음의 고저를 이해하고 '중앙도'자리를 중심으로 건반을 옆으로 확장하면서 자리를 익힌다.
베스틴	두개, 세 개씩 모여있는 검은 건반을 양손 따로 치고, '가온다' 자리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치면서 음의 고저를 익힌다.

㉔ 예비악보 음표, 쉼표, 박자표인식

바이엘은 예비악보를 따로 채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오선보표를 사용하고, 초보악전에서 미리 음표와 쉼표의 길이를 설명하였다. 초보악전에서 박자는 음의 센 부분과 여린 부분의 일정한 법칙이라 설명하고 셈여림의 형태를 나열하여 박자의 종류를 설명한다. 초보 악전에서 설명한 분량을 한꺼번에 아동에게 학습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연습곡에서 음표의 고저와 건반의 관계, 음표 읽기와 음표의 길이, 박자 세는 법에 대하여 교사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알프레드는 손가락 번호에 해당되는 건반의 음높이를 음표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보표 없이 그려 넣어 시각적으로 음표의 높낮이를 알 수 있게 하였고 음표는 4분음표를 시작으로 4분음표를 하나로 세어 손뼉 치면서 읽고, 음가가 큰 것으로 가르친다. 박자표는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를 세어 봄으로서 읽는 법을 익힌다.

베스틴은 무보표 방식으로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손뼉을 치면서 길고 짧은 음의 길이를 익히게 하고 음표를 세로줄로 나누어 마디를 설명한다. 쉼표는 음표와 같은 길이로 소리 내지 않는 부분으로 설명한다. 예비악보과정에서 곡의 앞부분에 씌어진 박자표에 대하여 아래 숫자는 몇 분음표를 한 단위로 세었는가, 위의 숫자는 한마디 안에 들어 있는 박의 개수로 세어 설명하고 있다.

<표4> 각 교재의 예비악보, 쉼표, 박자표

<표4-1>

교재명	예비악보
바이엘	예비 악보 없이 바로 오선보표를 사용한다.
알프레드	손가락 번호에 맞게 음표의 높낮이로 음의 높낮이를 알게 한다.
베스틴	무보표 방식으로 음표의 높낮이로 음의 높낮이를 알게 한다.

<표4-2>

교재명	음표, 쉼표
바이엘	초보 악전에서 그림과 함께 음표와 쉼표의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J □□ □□□□순서로 연습, 19번 연습곡에서 처음으로 쉼표 소개.
알프레드	J □□□□□□의 음가가 큰 순서대로 한 박자마다 손뼉을 치며 음표의 길이를 익힘, 쉼표는 B급에서 다루어진다.
베스틴	4분음표와 2분음표를 손뼉을 치면서 음의 길이를 익히고, 쉼표는 음표의 길이와 같고 소리를 내지 않고 쉬는 부분으로 설명, 온쉼표부터 연습곡에 적용하였다. (레슨교재 p44)

<표4-3>

교재명	박자표
바이엘	음의 센 부분과 여린부분의 일정한 법칙이라 설명하고 쉼여림의 형태를 나열하여 박자의 종류를 설명한다. 1~59번 연습곡에서는 4/4, 3/4, 2/4, 3/8 박자 연습을 다룬다.
알프레드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를 세어 봄으로서 읽는 법을 익힌다. 4/4, 3/4 박자 연습곡이 있다.
베스틴	아래 숫자는 몇분음표를 한 단위로 세었는가, 위의 숫자는 한마디 안에 들어 있는 박의 개수로 세어 설, 2/4, 3/4, 4/4 박자 연습곡이 있다.

㉔ 계이름, 음이름 인식

바이엘은 초보적인 악전에서 보표와 건반접근에서 음이름과 계이름 읽는 법을 설명하고 연습곡에서는 음이름이나 계이름에 대한 표시가 없으므로 교사가 아동이 학습하는 연습곡에서 계이름과 음이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동의 이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프레드는 건반의 라(A)음을 기준으로 솔(G)음까지 흰건반을 치면서 차례로 계이름과 영어음이름을 익힌다. 어떤 흰 건반이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음이름과 계이름, 건반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어 아동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스틴은 알파벳으로 된 영어 음이름을 설명하면서 흰건반에 이름을 붙여 이름을 부르며 흰건반을 하나씩 확장하면서 음이름을 학습한다. 예비 악보에서도 음표의 머리 부분에 영어 음이름을 표시하여 아동이 예비 악보를 연습하면서 쉽게 건반과 음이름을 접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계이름에 대한 표시는 따로 없으므로 교사가 영어 음이름과 계이름을 항상 함께 학습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표5> 각 교재의 계이름 음이름 인식

교재명	내용
바이엘	초보 악전에서 계이름과 음이름 설명. 독일어음이름, 영어음이름, 이태이어 음이름 소개
알프레드	라(A)음을 기준으로 솔(G)음까지 흰건반을 치면서 차례로 계이름과 영어음이름을 익히고 알파벳 카드를 통하여 영어음이름과 친숙해짐
베스틴	가(A)음을 기준으로 사(G)음까지 흰건반을 누르며 음이름에 해당하는 건반을 찾아 누르는 연습을 한다.

㉔ 오선 보표 접근

바이엘은 줄과 칸으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오선보표에서 각 음의 높이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각 음표의 높이를 줄과 칸에 그려 알게 한다.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고 1~53번까지 높은음자리표, 54번부터 낮은음자리표의 연습곡이 나오고 양손 주고받기 연습 후에 큰 보표의 연습곡이 등장한다. 연습곡의 처음부터 오른손으로 높은 음자리보표를 다루게 되므로 큰 보표를 학습 하게 될 때 낮은 음자리보표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사전연습이 필요하다.

알프레드는 오선보표에 쓰인 음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 줄과 칸을 세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낮은 음자리표를 먼저 연습하며, 음정 독보를 통하여 음의 진행과 음사이의 거리를 학습한다. 음정 독보에 치우쳐 계이름과 음이름 연습을 게을리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음정 독보와 계이름 독보를 병행해야 한다.

베스틴은 24면까지 예비악보 과정을 마치고 앞이 교재들과 마찬가지로 줄과 칸에 대한 개념을 미리 연습하고, 오선보표에 높은음자리와 낮은 음자리표를 오선위에 그리는 연습으로 시작한다. 음의 진행 방법으로 차례가기, 건너가기, 반복하기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오른손연습곡에서 높은 음자리 보표를 사용하여 가운데 자리 도를 중심으로 연습한다. 이 때 악보에 집중하고 건반을 내려다보지 않게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표6> 각 교재의 오선 보표 접근

교재명	내용
바이엘	5선 보표가 줄과 칸으로 이루어져 각 음의 높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양손 고받기 이후에 높은 음자리와 낮은 음자리표를 함께 괄호로 묶어 사용하는 큰보표를 사용했다
알프레드	줄과 칸을 세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낮은 음자리표를 먼저 연습하며, 음정 독보를 통하여 음의 진행과 음사이의 거리를 학습한다.
베스틴	줄과 칸으로 이루어진 5선위에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 그리는 연습을 한다.

㉑ 음정학습

바이엘에서는 2도, 3도, 4도, 5도 음정 연습을 시작으로 ‘도’의 자리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솔’의 자리로 중심을 옮겨 5도권 내의 음정연습을 하고 옥타브 음정연습과 46번 연습곡에서 왼손반주의 6도 음정연습도 나온다. 도 중심의 자리에서 솔 중심의 자리로 옮겨 질 때 손가락 번호는 곧 계이름과 건반의 자리라는 고정관념이 아동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프레드는 예비과정 A그에서는 2도 음정과 같은 음의 반복하기 정도의 음정 연습이외의 음정관계는 학습하지 않고 음정 독보법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악보 보기가 익숙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음정 독보는 쉽게 음의 진행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베스틴은 차례가기와 건너가기 반복하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2도, 3도,4도, 5도 권의 순으로 학습한다. 연습곡 마다 붙어 있는 가사가 아동에게 음정의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표7> 각 교재의 음정학습

교재명	내용
바이엘	2도, 3도, 4도, 5도 음정 연습을 '도'와'솔'자리 중심으로 연습한다.
알프레드	2도와 반복하기의 음정학습을 음정 독보법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베스틴	차례가기와 건너가기 반복하기 의 방법으로 2도,3도,4도, 5도 순으로 연습한다.

㉔ 조성학습

바이엘은 1~59번연습곡 중, 다장조 이외의 조성 학습은 소개되지 않으며 '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솔'의 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연습곡으로 다른 조성으로 가는 연습을 미리 하게 된다. 60번 연습곡에서 가단조로 자리바꿈하는 연습곡이 나오지만, 흰 건반을 이용한 연습이 계속 되어 나중에 검은 건반이 나오면 아동이 다른 조성과 검은 건반 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점이 단점이라 생각된다.

알프레드는 B급까지 조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도'와'솔'자리만 다루어 연습한다. 예비과정의 단계를 생각할 때 다른 조성이 도입은 아직 어려우나 교재 초반부에 검은 건반에 대한 접근법에서 검은 건반을 연습하여 다른 조성으로 가는 연습곡이 다음 단계에서 나오더라도 검은 건반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스틴은 조표를 가지고 조성을 가진 곡을 연습하는 악곡은 없으나 '다(C)'자리와 '사(G)'자리의 연습곡과 임시표를 통하여 바장조와 사장조의 곡을 익히게 되고, 계속되는 임시표 사용으로 무조성의 학습도 행해진다. 베스틴 교재

가 가장 다양하게 다른 조성과 검은 건반의 연습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표8> 각 교재의 조성학습

교재명	내용
바이엘	다장조 공부, 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솔'의 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연습곡, 그 외의 다른 조성은 언급되지 않는다.
알프레드	다장조 외의 조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도'의 자리와 '솔'의 자리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스틴	'다(C)'자리와 '사(G)'자리의 연습곡과 임시표를 통하여 바장조와 사장조의 곡을 익히고 계속되는 임시표 사용으로 무조성의 학습도 이루어진다.

④ 테크닉

바이엘은 19번 연습곡에서 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와 레가토(Legato)를 연습한다. 손목의 움직임이나 손가락의 터치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으므로 학습 시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소리를 이어서 치는 것과 짧게 끊어 치는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프레드는 레슨 교재에서는 예비과정에서 따로 테크닉에 대한 연습이 없고 테크닉 교재가 분리되어 있어 차례로 진행하는 건반의 연주에서 피아노와 포르테를 구별하여 치고, 반복되는 음을 건반으로 치는 연습을 한다.

베스틴은 예비악보부터 부드럽게 이어서 치는 레가토에 대한 설명이 있고 초급의 끝 부분 째에 스타카토연습이 있다. 33~34면에서는 이음줄과 붙임줄을 배우게 된다. 프레이즈와 손목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와 있어 아동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표9> 각 교재의 테크닉

교재명	내용
바이엘	메조스타카토(Mezzo Staccato)와 레가토(Legato)연습
알프레드	차례로 진행하는 건반의 연주에서 피아노와 포르테를 구별, 반복되는 음을 건반으로 치는 연습을 한다.
베스틴	예비악보부터 레가토 연습, 스타카토 연습과 붙임줄 이음줄 연습이 있다.

① 음악용어

바이엘은 초보적인 악적에서 음악이론의 전반적인 상식을 다루고 있는데 1~59번 까지 나오는 음악용어는 오선, 음자리표, 박자표, 음표와 쉼표, 연주방법, 빠르기말, 썸여림표 등이 있다. 초보 악전의 전반적인 설명에 그치고 연습곡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으므로 연습 시 해당하는 음악 용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알프레드는 바이엘 보다 간단한 음악용어들을 소개하였다. 기본적인 악곡의 형식에 관한 설명과 음표, 박자표의 소개 이외에, 썸여림표로는 피아노, 메조포르테, 포르테, 빠르기말로는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가 있다.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로는 연습곡의 앞머리에 한글로 표기하여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베스틴은 기본적인 음표 쉼표 박자표의 설명에 이어 음의 진행과 이음줄과 붙임줄, 임시표와 화음이 나오고 빠르기말은 다른 교재와 다르게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썸여림표 외에 빠르기말이 영어식으로 표기 되어 다른 교재에서 사용하는 빠르기말, 예를들면 Moderately(보통빠르기)는 Moderato(모데라토: 보통빠르기)와 뜻이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아동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표10> 각 교재의 음악용어

교재명	내용
바이엘	기본적인 설명(오선, 음자리표, 박자표, 음표와 쉼표), 연주 방법, 도돌이표, 레가토, 스타카토), 빠르기말, 썸머림표를 학습하였다.
알프레드	기본적 이론 설명과 피아노, 썸머림 말은 메조포르테, 포르테, 빠르기말로는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를 소개한다.
베스틴	기본적인 음표 쉼표 박자표의 설명에 이어 음의 진행과 이음줄과 붙임줄, 임시표와 화음이 나오고 빠르기말은 다른 교재와 다르게 영어로 표기 되어 있다.

(2) 종합 평가

바이엘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교재로서 구성이 이론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교육의 포괄적인 내용을 학습하기에 유용하고, 보표에 익숙하게 되어 독보력이 좋아지는 반면, 높은음자리표만 계속 제시되다가 뒤늦게 낮은음자리표를 제시하여 음자리표에 대하여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오른손의 연습에 치중하고 왼손은 알베르티 베이스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고른 발달을 가져오기 힘들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성은 다장조로서 다른 조성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후반부에 다른 조성이 나왔을 때 검은 건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바이엘 교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 악전에서 전반적인 음악이론과 용어의 설명이 이루어져 각 연습곡에 해당하는 음악이론과 용어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아동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엘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아동이 스스로 교재가 요구하는 것을 학습하기 힘들고, 자칫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교사

가 아동의 발달상태와 심리상태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아동의 피아노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큰 교재라고 생각한다.

알프레드 교재는 내용과 설명이 그림과 학습 과제에 대한 지시로서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교재에 나온 지시대로 아동이 놀이의 개념으로 흥미를 가지고 피아노 학습에 임할 수 있다. 베스틴과 마찬가지로 검은 건반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 검은 건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고, 예비 악보를 사용함으로써 건반의 고저와 음표의 관계를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다. 알프레드 교재는 연습곡의 학습 과제에 대한 반복학습이 잘 되어 있고, 편집상의 구성면에서 다양한 색감과 그림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나 병용교재의 수가 많고, 학습내용을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다루 학습량이 많아져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교재의 난이도가 다양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교재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적절한 수준의 교재와 병용곡집을 선택하여 아동에게 적용하고 학습량을 조절하여 학습시킨다면 아동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베스틴 교재는 그림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서 교사의 세세한 지시 없이도 아동 스스로 음악적인 느낌을 그려 내어 쉽게 교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검은 건반을 처음부터 다루게 하여 아동에게 검은 건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임시표 사용으로 무조성의 학습도 행해져 다른 교재에 비하여 베스틴 교재가 가장 다양하게 다른 조성과 검은 건반의 연습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초급단계 교재로서 너무 많은 학습 분량으로 한 단계를 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아동이 지루해 하고 성취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번역 교재의 단점으로서 미국교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다 보니 음악적인 용어나 설명 등에 영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제시되는 연습곡의 멜로디가 우리 아동들의 정서에 쉽게 공감되기 어려워 아동의 악곡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IV. 초급과정 교재의 사용 실태 조사 분석

(1) 연구 목적 및 대상

피아노 지도에 관한 교육 현장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지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지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의 대상으로는 서울시내 교습소와학원의 피아노 교사들과, 기독교음악대학과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자들 중 피아노 교사들을 대상으로 우편과 인터넷 메일과 직접설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총 배포한 70부의 설문지 중에 성의 없는 답변으로 사용할 수 없는 3부와 수거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56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었다.

1. 연구 문제의 설정(2003.3.1~2003.5.31)
2. 문헌 연구(2003.6.1~2003.8.31)
3. 표집 대상의 선정(2003.9.1~2003.9.30)

4. 설문지 개발 및 작성(2003.9.1~9.30)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2003.10.1~2003.10.10)
6. 자료 처리 및 분석(2003.10.11~2003.10.20)
7. 연구 논문 작성(2003.10.21~2003.11.27)

이상의 일정으로 설문지를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각 항목별로 집계하고 백분율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3) 설문지의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논문이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별첨 부록1>

설문지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아노 교사에 대한 개인정보로서 교사들의 전공과 교수형태, 다양한 교재에 대한 교사들이 인지도, 교재 선택 전에 아동에 대하여 고려하는 사항, 교재 선택 시 아동의 음악적 능력 중 어떤 영역의 향상을 고려해 두고 교재를 사용하는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무엇인가,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재 사용 시 교사가 느끼는 사용 교재의 보완점은 무엇인가, 보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 보조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 및 해석

설문지의 문항 순서대로 응답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설문 응답 교사들의 전공에 관한 질문으로 56명의 응답자중 전체의 41.1%인 23명이 피아노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악이 30.4%를 차지하여 대부분 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많았다. 기타의 답변에는 음악교육, 유아교육 이 7.2%(4명), 그 외의 답변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도 5.36%가 있었다.

<표11> 피아노 교사의 전공분포

교사의 전공	인원수(명)	%
피아노	23	41.1
성악	17	30.4
작곡	5	8.9
관현악	4	7.2
기타	7	12.5
전체	56	100

교사들의 피아노 교수 형태에 대한 조사로 학원 및 교습소 개인레슨의 형태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답변에는“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피아노 단체 특강과, 교회나 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피아노를 가르친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표12> 피아노 교수 형태

교수형태	인원수	%
학원 및 교습소	31	55.4
개인교습	20	35.7
기타	5	8.9
전체	56	100

교사의 경력에 대한 조사로서 대부분 젊은 교사들의 모임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10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대부분이었지만,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15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교사도 3.6%이었다. 교사의 경력과 초급 교재의 사용실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었다.

<표13> 교사의 경력

경력	인원수	%
1년-3년	24	42.9
4년-6년	14	25.0
7년 이상	18	32.1
전체	56	100

아동의 피아노 초급단계의 입문 시기를 보면 전체의 53.6%가 6세에서 7세에 교습을 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4> 아동의 피아노 교육 시작 시기

아동의 피아노 시작 시기	인원(명)	%
5세 이하	2	3.6
6세~7세	30	53.6
8세~9세	21	37.5
10세 이상	3	5.4
전체	56	100

교사가 피아노 교본을 선택하기 전에 아동에 대하여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아동의 학습능력을 51.8%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의 적성과 흥미를 30.4%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교본 선택 전 고려사항

교본선택전 고려사항	인원	%
아동의 학습능력	29	51.8
아동의 적성과 흥미	17	30.4
아동의 연령	5	8.9
부모의 요구	3	5.4
기타	2	3.6
전체	56	100

교사들의 다양한 교재에 대한 인지도는 다음과 같다. 인지도점수 5점 만점에서 바이엘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이 4.10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알프레드가 3.53, 베스틴이 2.82로 대부분 바이엘과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교재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

	인지도평균	표준편차
바이엘	4.64	0.94
베스틴	2.82	1.37
알프레드	3.53	1.09
메토드로즈	1.55	0.95
아마테우스	1.89	1.18
글로버	1.35	0.84
톰슨	1.89	1.24
스즈키	1.98	1.31
글라미어	2.44	1.36
새롭게편집된바이엘	4.10	1.42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교재에 대한 답변으로는 바이엘 28.8%,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 41.1%, 알프레드 17.9%, 기타 교재 7.2% 나타났다. 이것은 사용교재와 교사들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7>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인원	%
바이엘	16	28.6
알프레드	10	17.9
베스틴	3	5.4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	23	41.1
기타	4	7.2
전체	56	100

인지도와 사용교재와의 상관계수를 보면 바이엘 -0.01, 새로운 바이엘 0.48, 베스틴 0.38, 알프레드 0.24로, 바이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재는 교사들이 잘 알고 있는 교재를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바이엘은 많이 알고는 있는 반면 사용빈도는 인지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사용하는 교재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사 스스로가 타 교재와 비교해 보고 좋은 교재를 직접 골라 아동에게 적용하였다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바이엘 교재가 본인이 학습한 교재라 친근하여 사용한다는 답변도 28.6%나 되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중 학원 운영자가 사용하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8.9%(5명), 그 외에 진도가 빠르고 가르치기 쉽다는 답변도 3.6%(2명) 있었다.

<표18>현재 사용하는 교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

교재를 선택한 계기	인원	%
타교재와 비교후 직접 고름	21	37.5
본인이 학습한 친숙한 교재	16	28.6
아동의 흥미	8	14.3
광고를 통하여	2	3.6
학부모의 요구	2	3.6
기타	7	12.5
전체	56	100

교사가 교재선택 시에 목적으로 하는 아동의 음악적 능력 향상에 대한 분석으로 2개의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재를 선택 시 아동의 음악적 능력의 성장 중에 리듬·화성·가락 및, 독보력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아동의 흥미와 음악성을 중시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한 개의 응답만 하여 무응답으로 처리된 건도 11%나 되었다.

<표19>사용교재에서 목적으로 하는 음악적 능력

사용교재에서 목적으로 하는 음악적 능력	응답 수	%
리듬, 화성, 가락	38	34
독보력	26	23
테크닉	12	11
음악이론	7	6
창의력	11	10
기타	18	16
전체	112	100

현재 선택하여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대한 조사로서 대부분의 교사는 현재 사용하는 교재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지 않고 보완점을 느끼고 있었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악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 중 41.82%나 되었다. 기타의견으로 보완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12.73%, 리듬과 화성이 어렵다 3.64%, 중급교재로 연결이 어렵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표20> 교사가 느끼는 교재의 보완점

교사가 느끼는 교재의 보완점	인원	%
흥미를 유발하는 악곡의 부족	24	41.8
학습내용의 양이 적절치 못함	7	12.7
단계별 난이도의 기복이 심함	13	23.6
학습 능력의 정체가 심함	2	3.6
기타	10	18.2
전체	56	100

사용교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1.8%의 교사가 보조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식 설문문항의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각 출판사의 초급과정 아동용 동요집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악곡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 보조교재 사용여부

보조교재 사용여부	인원	%
사용	23	41.82
미사용	33	58.93

보조 교재를 사용하고 난 후 대부분의 아동은 흥미 있어 하며 쉽게 받아들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표22> 보조교재 사용 후 아동의 반응

보조교재 사용 후 아동의 반응	인원	%
흥미있고 쉽게 받아들임	17	75
흥미는 있으나 어려워함	4	17
흥미는 없으나 받아들임	1	4
흥미도 없고 어려워함	1	4
전체	23	100

다음은 위의 설문지 1차 분석으로 나타난 교재 사용의 실태를 각 문항과 연결하여 재분석한 결과이다.

교사의 전공과 선택교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아노, 성악을 전공한 교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로 42.5%의 응답자가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그 중 작곡을 전공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새로운 바이엘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피아노 전공 교사들은 전체에 비하여 13%와 베스틴 교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교사의 전공에 따른 사용 교재의 분포

전공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새로운 바이엘	기타	총 합계
피아노	21.7% (5)	13% (3)	17.4% (4)	39.1% (9)	8.7% (2)	100% (23)
성악	29.4% (5)	0% (0)	17.6% (3)	47.1% (8)	5.9% (1)	100% (17)
전체	25% (10)	7.5% (3)	17.5% (8)	42.5% (17)	7.5% (3)	100% (40)

교습 형태에 따른 교재선택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이 사항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바이엘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타 응답에 개인 레슨교사가 하이비스 교재를 사용한다는 답변이 8.3% 있었다.

<표24> 학원과 개인레슨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

교습 형태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새로운 바이엘	기타	총합계
학원	31% (9)	6.9% (2)	20.7% (6)	37.9% (11)	3.4% (1)	100 % (29)
개인 레슨	25.0% (6)	4.2% (1)	12.5% (3)	45.8% (11)	12.5% (3)	100 % (24)
전체	28.3% (5)	5.7% (3)	17% (9)	42% (22)	5.7% (4)	100 % (53)

전체적으로 새로운 바이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바이엘 알프레드 베스틴 순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같았지만, 교사의 경력이 짧을수록 알프레드 아마데우스 등 새로운 방식의 교재 사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25>교사의 경력기간과 교재선택의 관계

경력	바이엘	베스틴	알프레드	새로운 바이엘	기타	총합계
3년 이하	29.2% (7)	4.2% (1)	20.8% (5)	37.5% (9)	8.3% (2)	100 % (24)
4년-6년	35.7% (5)	7.1% (1)	14.3% (2)	42.9% (6)	0.0% (0)	100 % (14)
7년 이상	22.2% (4)	5.6% (1)	16.7% (3)	44.4% (8)	11.1% (2)	100 % (18)
전체	28.6% (16)	5.4% (3)	17.9% (10)	41.1% (23)	7.1% (4)	(56)

교재 선택 시의 고려 점과 사용하는 교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바이엘을 사용하는 교사는 아동의 학습능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교사는 베스틴과 알프레드 교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교재선택 시 아동에 대한 고려 점과 교재선택결과

교재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학습능력	아동의 적성과흥미	부모의 요구	기타	총합계
바이엘	18.8% (3)	50% (8)	25% (4)	6.3% (1)	0% (0)	100 % (16)
베스틴	0% (0)	0% (0)	100% (3)	0% (0)	0% (0)	100 % (3)
알프레드	20% (2)	30% (3)	40% (4)	10% (1)	0% (0)	100 % (10)
그 외 교재	0% (0)	66.7% (18)	22.2% (6)	3.7% (1)	7.4% (2)	100 % (27)
전체	8.9% (5)	51.8% (29)	30.3% (17)	5.4% (3)	3.6% (2)	100 % (56)

다음은 현재 사용하는 교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바이엘은 교사에게 익숙하여 선택한 이유가 가장 많았고, 알프레드는 아동이 흥미 있어 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 외의 교재에서는 직접 비교해 보고 선택하였다는 대답이 많았는데,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과 하이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숙한 교재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교재를 연구하고 사용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표27> 교재선택결과와 선택계기

교재	익숙한 교재	학부모 권유	타교재와 비교후선택	아동이 흥미있어함	광고를 통해	기타	총 합계
바이엘	62.5% (10)	0% (0)	25% (4)	6.3% (1)	6.3% (1)	0% (0)	100% (16)
베스틴	0% (0)	0.0% (0)	33.3% (1)	33.3% (1)	0% (0)	33.3% (1)	100% (3)
알프레드	0% (0)	0.0% (0)	20% (2)	60% (6)	10% (1)	10% (1)	100% (10)
그외교재	22.2% (6)	7.4% (2)	51.9% (14)	0% (0)	0% (0)	18.5% (5)	100% (27)
전체	28.6% (16)	3.6% (2)	37.5% (21)	14.3% (8)	3.6% (2)	12.5% (7)	100% (56)

바이엘 교재를 선택한 교사는 아동에게 독보력을 제일 중요시 여겨 선택하였고 다음으로는 리듬·가락·화성의 향상을 중점으로 삼았다. 알프레드를 사용하는 교사는 주로창의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교재선택 시 고려하는 아동의 음악적 능력

교재	무응답	독보력	리듬 화성 가락	테크닉	음악 이론	창의력	기타	총 합계
바이엘	12.5% (4)	31.6% (10)	28.1% (9)	12.5% (4)	15.6% (5)	0% (0)	0% (0)	100% (32)
베스틴	0% (0)	0% (0)	33.3% (2)	16.7% (1)	33.3% (2)	0% (0)	16.7% (1)	100% (6)
알프 레드	10% (2)	10% (2)	30% (6)	5% (1)	5% (1)	25% (5)	15% (3)	100% (20)
그외 교재	11.1% (6)	27.8% (15)	37.0% (20)	11.1% (6)	1.9% (1)	7.4% (4)	3.7% (2)	100% (54)
전체	10.7% (12)	24.1% (27)	33.1% (37)	10.7% (12)	8% (9)	8% (9)	5.3% (6)	100% (112)

다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대한 조사로서, 알프레드로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이 가장 흥미 있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베스틴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어린이가 흥미는 있으나 교재의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엘 교재를 사용하여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지루해 한다는 답변이 37.4%로 다른 교재에 비하여 아동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9>선택한 교재에 따른 교재별 어린이의 반응

교재	흥미있고 받아들임	흥미있고 어려워함	지루하고 받아들임	지루하고 어려워함	무응답	총합계
바이엘	31.3% (5)	31.3% (5)	31.3% (5)	6.3% (1)	0% (0)	100% (16)
베스틴	0% (0)	100% (3)	0% (0)	0% (0)	0% (0)	100% (3)
알프 레드	80% (8)	20.0% (2)	0% (0)	0% (0)	0% (0)	100% (10)
그외 교재	37% (10)	48.1% (13)	11.1% (3)	0% (0)	3.7% (1)	100% (27)
전체	41.1% (23)	41.1% (23)	14.3% (8)	1.8% (1)	1.8% (1)	100% (56)

전체 적으로 흥미로운 악곡부족을 가장 큰 보완 점(35.7%)으로 삼았고, 알프 레드 는 학습내용의 양이 부적절하다(40%)라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는 바이엘 은 비슷한 유형의 연습곡의 반복이 많아 진도가 느려지고 아동이 쉽게 싫증을 낼 수 있고, 베스틴의 악곡들은 미국의 민요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가 많아 흥미유발의 악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고 보이고, 알프레드 는 비슷한 난이도와 내용의 병용교재가 많아 학습량의 증가로 아동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30> 선택한 교재 사용 시 교사가 느끼는 교재의 보완점

교재	무응답	흥미유발 악곡부족	반복이 많음	난이도의 기복 심함	학습내용의 양이부적절	기타	총합계
바이엘	0% (0)	56.3% (9)	12.5% (2)	18.8% (3)	6.3% (1)	6.3% (1)	100% (16)
베스틴	0% (0)	33.3% (1)	0% (0)	0% (0)	0% (0)	66.7% (2)	100% (3)
알프레드	10% (1)	0% (0)	0% (0)	0% (0)	40% (4)	50% (5)	100% (10)
그외교재	0% (0)	48.1% (10)	0% (0)	37.0% (8)	7.4% (7)	7.4% (2)	100% (27)
전체	1.8% (1)	35.7% (20)	3.6% (2)	19.6% (11)	21.4% (12)	17.9% (10)	100% (56)

(5) 설문조사 결과 전체 평가

다양한 교재가 소개되고 많은 교재의 연구들이 행해진 것에 비하면 사용교재의 변화와 인지도의 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이 짧은 경우 알프레드나 베스틴 등 좀더 다양한 교재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대학이나, 음악 교사 양성기관에서 새로운 교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하고 피아노 교사를 배출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역 바이엘 외에 새롭게 편집된 각 출판사의 바이엘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다양하게 출판되는 새로운 교재들의 장점들을, 전역 바이엘이 가진 단점과 보완하여 만든 새로운 바이엘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바이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바이엘 류에 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아쉽지만, 새로운 교재에 대한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아동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과거 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 스스로가 교재에 대하여 직접 연구 하고 아동의 상태와 흥미에 따라 교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결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 진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음악 교육에 입문할 때 피아노교육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돌아보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기초 피아노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의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여 교육하는 것은 올바른 피아노 교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까지 피아노 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보편화 되었는데 비하여 다양한 교재들이 선보이게 된 것은 불과 20년 안팎의 이야기 이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번역 교재만 해도 십여 종에 이르는데, 최신 교재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받는 피아노 교육의 실정에 맞고, 피아노 교육을 받는 주체인 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는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교재여야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초급과정의 피아노 지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들 중 바이엘, 알프레드, 베스틴 교재를 선택하여 기초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바이엘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교재로서 구성이 이론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교육의 포괄적인 내용을 학습하기에 유용하고, 보표에 익숙하게 되어 독보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음자리표만 계속 제시되다가 뒤늦게 낮은음자리표를 제시하여 음자리표에 대하여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오른손의 연습에 치중하고 왼손은 알베르티 베이스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고른 발달을 가져오기 힘들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성은 다장조로서 다른 조성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후반부에 다른 조성이 나왔을 때 검은 건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바이엘 교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 악전에서 전반적인 음악이론과 용어의 설명이 이루어져 각 연습곡에 해당하는 음악이론과 용어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아동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엘교재는 다른 교재와 달리 아동이 스스로 교재가 요구하는 것을 학습하기 힘들고, 자칫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교사가 아동의 발달상태와 심리상태들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아동의 피아노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큰 교재라고 생각한다.

알프레드 교재는 내용과 설명이 그림과 학습 과제에 대한 지시로서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교재에 나온 지시대로 아동이 놀이의 개념으로 흥미를 가지고 피아노 학습에 임할 수 있다. 베스틴과 마찬가지로 검은 건반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 검은 건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고, 예비 악보를 사용함으로써 건반의 고저와 음표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연습곡의 학습 과제에 대한 반복학습이 잘 되어 있고, 편집상의 구성 면에서 다양한 색감과 그림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병용교재의 수가 많고, 학습내용을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다뤄 학습량이 많아져 아동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지만 교재의 난이도가 다양하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히 교재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적절한 수준의 교재와 병용 교재를 선택하여 아동에게 적용하고 학습량을 조절하여 학습시킨다면 아동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베스틴 교재는 그림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학습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서 교사의 세세한 지시 없이도 아동 스스로 음악적인 느낌을 그려 내어 쉽게 교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검은 건반을 처음부터 다루게 하여 아동에게 검은 건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임시표 사용으로 무조성의 학습도 행해져 다른 교재에 비하여 베스틴 교재가 가장 다양하게 다른 조성과 검은 건반의 연습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초급단계 교재로서 너무 많은 학습 분량으로 한 단계를 마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아동이 지루해 하고 성취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번역 교재의 단점으로서 미국교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다 보니 음악적인 용어나 설명 등에 영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제시되는 연습곡의 멜로디가 우리 아동들의 정서에 쉽게 공감되기 어려워 아동의 악곡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초급교재에서 각 교재마다 장, 단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재만을 좋은 교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각 각의 장점을 잘 융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여 아동 개개인의 발달 상태에 맞게 교재를 선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피아노 교육을 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한 교사의 깊은 이해와 연구와 다양한 교재에 대한 정보와 교재의 장점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흡수 할 수 있는 교사의 열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피아노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재와 교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음악학원과 교습소의 피아노 교사와, 기독교음악대학과 성신여대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생들을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를 보면 피아노와 성악을 전공한 교사가 71.5%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피아노에 입문하는 시기는 주로 6~7세로 53.6%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교재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바이엘과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알프레드가 높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로는 새롭게 편집된 바이엘을 사용하는 교사가 응답자의 41.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전통적인 바이엘을 사용하는 교사도 28.6%나 되었다.

다양한 교재가 출판 되고 많은 신 교재들과 새로운 피아노 교수법이 유행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실에서 바이엘 교재의 꾸준한 사용은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이는 바이엘 교재가 짧은 시간 내에 지도가 가능하고, 단기간에 눈에 띄는 음악적 능력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편집한 바이엘 교재를 전체 설문 응답자 중에 41.1%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점으로 출판되는 외국 번역 서적과 달리 국내의 여러 출판사에서 각 교재들의 장점들과 바이엘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시도로 교재들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정서에 맞고 쉽게 공감하며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악곡과 삽화 등의 구성으로 계속 출판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엘과 새로운 바이엘 외에는 알프레드와 베스틴, 하이비스 등의 최신 교재도 28.6%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재를 선택한 이유로는 교사 스스로가 타 교재와 비교해 보고 좋은 교재를

직접 골라 아동에게 적용하였다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음악적 능력의 향상은 리듬·가락·화성, 독보력에 각각 34%와 23%의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사용하는 교재의 보완점으로는 흥미를 유발하는 악곡의 부족을 41.8%로 꼽았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41.8%의 교사가 보조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획일화된 교재를 가지고, 교사 중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피아노 교육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교사들이 아동의 발달과 음악적 능력의 성장과 흥미를 고려하여 피아노를 지도하려는 다각적인 의식 변화가 보여 진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교재의 개발이 바이엘에만 한정되는 점이 아쉽고, 현재 사용되는 알프레드나 베스틴 등의 외국 번역 교재 역시 독점계약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아동의 정서와 교육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는 시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박영수. (1988). 『피아노 주법과 교수법』.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옥형외. (1992). 『교육심리학』. 서울 : 집문당
- 방금주 역. (1997).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삼호출판사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출판사
- 한국음악교재연구회. (1984) 『최신 피아노 강좌2-세계의 피아노 교육과 기본』. 서울 : 세광음악출판
- YAMAHA MUSIC MEDIA COPRATION. 상지원 역. (1995). 『피아노를 읽는 책』 서울 : 상지원
- 송정이. (1989). 『피아노연주와 교수법』. 서울 : 음악춘추사
- 맥스 캠프. (1995). 『피아노 연주법』.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간행물>

- 정완규.(1983). 피아노교재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피아노 음악』. 5월. 서울 : 음악춘추사
- 이현자. (1998). 음감 개발을 위한 솔페이지 및 리듬교육. 『피아노 음악』 4월. 서울 : 음악 춘추사.

<학위논문>

- 박지은. (2000). 피아노 초급교재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애. (2002). 초급 피아노 교재의 비교 분석 및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홍숙. (2002). 취학전 아동에 대한 피아노지도의 효율적 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주. (1993). 어린이 피아노 학습의 기초 교본 및 설문을 중심으로 한 실태 조사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 이지영. (2001). 아동을 위한 표율적인 피아노 지도 방안-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영. (2002). 기초 피아노 교본 분석과 지도방법 연구(바이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은. (2000). 피아노초급교재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혜진. (2001). 미국의 피아노 기초교재 비교 분석 -베스틴, 알프레드를 중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보순. (2002). 피아노 초급 교재들의 비교 분석 연구-바이엘, 베스 틴,클라 비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음 악테크놀로지 대학원.

- 김효정. (2001). 초급과정이 피아노 교재 비교 연구-뉴바이엘, 베스틴,알프레드 교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민. (2001). 바이엘 피아노 교본의 비교분석과 지도방법 연구-5개 교본에 한해서. 석사학위 논문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주. (2001). 유 · 아동기 효율적인 피아노 지도방법.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피아노 교재>

- 페르난디트 바이엘. (1980). 『전역 바이엘 피아노 교본』 . 서울 : 일신서적
- 윌라드 A. 팔머 외. (1987). 『알프레드 기초 피아노라이브러리』 . 예비과정 A급(레슨교재, 테크닉 교재). 서울 : 상지원
- 제임스 베스틴. (2003). 『새 번역에 의한 피아노 교본』 . 초급편(피아노 교재 , 테크닉 교재). 서울 : 음악 춘추사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Beginner's Piano Teaching
Materials and Research on their Usage in Childhood

Sun-hye, Ka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Shin Woman's University

Most piano lessons started in childhood are mainly driven by teachers based on piano teaching materials. Hence choice of proper books is directly related to the efficient and upright piano lessons.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help teachers to understand what lessons are included in each book through analysis on basic materials and to suggest effective measures for better teaching through analysis on merits and demerits of each material. Also through questionnaire on how beginner's teaching materials are being used, it's to find out status of textbook usage and teachers' recognition on the books and change of their thoughts and to discuss on what they have to consider and to correct in choosing materials and in piano lessons.

Among teaching materials for the beginner widely recognized and

used the most frequently, it's defined Bayel, Alfred pre course A, and Bestin for analysis. With results of analysis, Bayel is the traditional one and well organized and systemized in its composition but bass [F] clef and new articulation are quite lately introduced and similar type of lesson music pieces repeated very often so, it brings children feel bored and difficult.

Even though Alfred stimulates children's interests and has detailed subjects and explanations compared with other materials, it may delay a progress because of overloaded lesson volume caused by excessive subdivision.

On the other hand, Bestin has a merit to stimulate children's interests by visual effects with various colored illustrations and specific explanations through the pictures but it's lack of music pieces agreed by our children because it's used by translating American color materials.

56 teachers are questioned, who teach in music institutes and lessons in downtown Seoul and who currently teach piano among students of Christian Music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in Women's University.

Seen the results, teachers who majored piano and vocal music are the most with 71.5% and 53.6% of them replied children start to take piano lesson at their age in 6 or 7. 41.1% of respondents, the biggest numbers, said they use newly compiled Bayel the most and 37.5% provided the

reason that teachers themselves compared with other materials to choose for applying on children. For an improvement of musical ability, 34% and 23% replied rhythm, melody, harmony and originality respectively. For problems to be improved in using textbooks, lack of musical piece stimulating interests accounts for 41.8% and these teachers use additional materials to solve the problems.

Derailed from the piano lessons driven by mainly teachers with standardized teaching materials, teachers try to teach in consideration of children's level for efficient piano lesson with change of recognition in various way.

It's very regret that kinds of teaching materials actively studied and developed in the nation are limited to Bayel and foreign materials such as Alfred or Bestin also need a study on materials for new interpretation beyond limit of publishment by an exclusive publishing company. It's expected many kinds of Bayel currently re-interpreted are to be compared and analyzed for efficient methods on piano lesson curriculum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next studies

<부 록>

설 문 지

이 설문지는 아동기 피아노 기초교본의 선택과 사용실태와 제 문제를 파악, 분석하여 더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연구가 되도록 평소에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솔직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 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 선 혜

★ 작성 요령 ★

다음 설문을 읽고 () 안에 해당 번호나 표를 해두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란에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피아노 ② 작곡 ③ 성악 ④ 관악 ⑤ 현악 ⑥ 기타 ()

2. 어떤 형태로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교습형태를 골라주세요)

- ① 교습소 및 음악학원 ② 개인레슨 ③ 기타 ()

3. 귀하의 피아노 실기 지도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약 () 년

4. 귀하가 가르치는 학생의 수는 몇 명입니까?

약 () 명

5. 귀하가 가르치는 아동들은 주로 몇 세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습니까?

- ① 5세 이하 ② 6~7세 ③ 8~9 세 ④ 10세이상

6. 피아노 기초교본 선택 전에 학습 아동에 대하여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 ① 아동의 연령 ② 아동의 학습 능력 ③ 아동의 적성과 흥미도
④ 부모의 요구 ⑤ 기타 ()

7. 다음의 교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	2	3	4	5
① 바이엘	()	()	()	()	()
② 베스틴	()	()	()	()	()

- ④ 아동의 흥미 있어 하는 교재라서 선택
- ⑤ 음악신문과 잡지 등의 광고를 통하여
- ⑥ 기타()

10. 현재 사용 중인 교재는 아동의 어떤 음악적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선택한 것입니까?(가장 고려하는 것 2가지를 고르십시오)

- ① 독보력 ② 리듬, 화성, 가락 ③ 테크닉
- ④ 음악이론 ⑤ 창의력 ⑥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
- ⑦ 기타 ()

11. 현재 사용 중인 교본으로 학습하는 어린이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 ① 흥미있어 하고 쉽게 받아들인다
- ② 흥미는 있으나 어려워 한다
- ③ 지루해 하나 받아들인다
- ④ 지루해 하고 어려워 한다
- ⑤ 기타 ()

12. 현재 사용 중인 교본 중에서 가장 보완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흥미를 유발하는 악곡이 부족하다
- ② 반복이 너무 많아 학습 능률의정체가 심하고 진도가 느려진다
- ③ 단계별 난이도의 기복이 심하다

④ 학습내용의 양이 적절하지 않다

⑤ 기타 ()

13. 현재 사용하고 계신 교본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 교재를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1. 위의 질문에 예하신 분들만 대답하여 주십시오

부교재를 사용하신다면 교재의 이름과 출판사를 정확하게 자세히 적어주세요.

()

13-2. 부교재를 사용한 후 아동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① 흥미 있어 하며 쉽게 받아들인다

② 흥미는 있어 하나 어려워한다

③ 흥미는 없지만 쉽게 받아들인다

④ 흥미도 없고 늘어난 학습양으로 어려워한다

⑤ 기타()

감사합니다